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한·중·일간 무역경쟁력 비교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왕 산

2012년 2월



# 한·중·일간 무역경쟁력 비교 분석

지도교수 김 영 춘

왕 산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2 월

왕산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 년 2 월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2
3. 연구 방법	2
II. 선행 연구	5
III. 한·중·일의 무역 현황	9
1. 한국의 무역 현황	9
2. 중국의 무역 현황	12
3. 일본의 무역 현황	15
IV. 한·중·일 3국간 무역의 발전 과정 및 무역 구조 변화	19
1. 한·중 무역의 발전 과정 및 무역 구조 변화	19
1) 한·중 무역의 발전 과정	19
2) 한·중 상호간 무역의 교역 현황	22
3) 한국 대 중국 품목별 수출	25
4) 한국 대 중국 품목별 수입	26
2. 한·일 무역의 발전 과정 및 무역 구조 변화	27
1) 한·일 무역의 발전 과정	27
2) 한·일 상호간 무역의 교역 현황	29
3) 한국 대 일본 품목별 수출	31
4) 한국 대 일본 품목별 수입	32
3. 중·일 무역의 발전 과정 및 무역 구조 변화	34
1) 중·일 무역의 발전 과정	34
2) 중·일 상호간 무역의 교역 현황	35
3) 중국 대 일본 품목별 수출	36
4) 중국 대 일본 품목별 수입	37

4. 한·중·일 3국 무역 구조의 변화.....	38
1) 한국의 무역 구조의 변화 추이.....	38
2) 중국의 무역 구조의 변화 추이.....	39
3) 일본의 무역 구조의 변화 추이.....	40
4) 한·중·일 주요 수출국 비중 비교.....	41
V. 한·중·일 3국간 무역경쟁력 비교 분석.....	44
1. 한·중·일의 RCA지수 비교 분석.....	44
1) 현시비교우위지수.....	44
2) 실증분석.....	47
2. 한·중·일 3국의 TSI지수 비교 분석.....	51
1) 무역특화지수.....	51
2) 한·중·일 3국의 대 세계 수출입 비교.....	52
3) 미국시장에서의 한·중·일 3국의 품목별 무역경쟁력 비교.....	56
3. 한·중·일간 무역경쟁력 비교 분석.....	59
1) 한·중 경쟁력 비교.....	59
2) 한·일 경쟁력 비교.....	61
3) 중·일 경쟁력 비교.....	64
VI. 결론.....	68
참고 문헌.....	72
부록.....	76
ABSTRACT.....	80

## <표 및 그림 목차>

<표 3-1> 한국 수출입 현황.....	10
<표 3-2>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11
<표 3-3> 한국의 10대 수입 품목.....	12
<표 3-4> 중국 수출입 현황.....	13
<표 3-5> 중국의 10대 수출 품목.....	14
<표 3-6> 중국의 10대 수입 품목.....	14
<표 3-7> 일본의 수출입 현황.....	16
<표 3-8> 일본의 10대 수출 품목.....	17
<표 3-9> 일본의 10대 수입 품목.....	18
<표 4-1>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관계 발전 과정.....	21
<표 4-2> 한국의 대 중국 업종별 해외 투자 현황(2011년 3월까지).....	24
<표 4-3>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산업별 분포.....	25
<표 4-4> 한국의 대 중국 품목별 수출.....	25
<표 4-5> 한국의 대 중국 품목별 수입.....	26
<표 4-6> 한국의 대 중국 수입의 산업별 분포.....	27
<표 4-7> 한국의 대 일본 품목별 수출.....	31
<표 4-8>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의 산업별 분포.....	32
<표 4-9> 한국의 대 일본 품목별 수입.....	33
<표 4-10> 한국의 대 일본 수입 산업별 분포.....	33
<표 4-11> 중국의 대 일본 교역 규모.....	35
<표 4-12> 중국의 대 일본 수출 품목별 변화.....	36
<표 4-13> 중국의 대 일본 수입 품목별 변화.....	37
<표 4-14>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0년).....	38
<표 4-15>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0년).....	40
<표 4-16> 일본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0년).....	41
<표 4-17> 한·중·일의 5대 수출국 비중 비교(2010년).....	43

<표 5-1> 한국 연도별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RCA지수.....	48
<표 5-2> 중국 연도별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RCA지수.....	49
<표 5-3> 일본 연도별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RCA지수.....	50
<표 5-4> 한·중·일 대 세계 수출입규모 비교.....	52
<표 5-5>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무역특화지수.....	55
<표 5-6>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무역특화지수.....	58
<표 5-7> 한국과 중국의 무역특화지수.....	60
<표 5-8> 한국과 일본의 무역특화지수.....	64
<표 5-9> 중국과 일본의 무역특화지수.....	67
<그림 1> 한·중·일 수출증가율 추이 비교.....	42
<그림 2> 한·중·일 무역수지 추이 비교.....	42



# I. 서론

## 1. 연구 목적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형적 확대를 통해 긴밀한 무역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으며, EU, NAFTA 등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3국 간 경제관계가 확대된 데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에 기인하는 바 크며,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무역구조가 기존의 미국 중심에서 중국으로 전환되면서 3국 간 분업구조가 강화된데 따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15.8%에 달하고 있으며, 3국의 교역규모도 전 세계의 18.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역내 주요 3국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들 3국간 FTA를 포함한 경제통합의 논의가 폭 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중·일 3국의 글로벌화는 상대국의 산업 생산과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생산 및 무역연관구조와 상호 의존관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3국간 경제통합을 논의·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경제의 확산과 1국의 경제활동은 타국에 더욱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1국의 경제활동이 타국의 경제와 이미 연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자국의 경제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 이에 따른 파급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출구조의 변화는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국제적 비교우위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기술진보, 자본축적, 기술 인력의 증대, 기호의 변화 등은 국제적 비교우위의 형태를 변화시키므로 다양한 산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의 능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이들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일정하지 않다. 자원 및 생산요소가 새로운 산업부문에 배분될 때 어느 산업의 생산, 고용, 투자 및 수출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다른 산업의 생산, 고용, 투자 및 수출의 점유율은 증가한다.

세계 공업의 성장과 구조 개편은 비교우위의 이동을 초래하였으며, 선·후진국들의 구조적 변화율의 차이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비교우위 그 자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인 개념이고 비교우위의 이동은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 간의 장래 산업관계 정립의 핵심적 사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중·일 3국간 글로벌화에 따른 무역의 의존관계 심화 현상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경쟁력변화와 비교우위를 고찰하고 있다.

##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한·중·일간 품목별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3국 간 무역구조를 관찰하고 있으며, 3국의 품목별 특징을 고려한 HS분류를 토대로 주요 산업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기간은 3국 간 교역구조 특징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로 하였으며, 3국 간 경쟁력 비교분석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입 통계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직접 추출하여 분석에 도입하였다.

더욱이 한·중·일 3국 간 품목별 통계를 이용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추출하여 한·중·일 3국간 무역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중·일의 대 세계시장의 품목별 경쟁력 비교, 그리고 한·중·일의 2국 간 품목별 경쟁력 비교 및 상호의존관계 변화를 통해, 한·중·일의 어떠한 품목이 어느 정도 경쟁력 우위 또는 열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후 작성하였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의 수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역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향후 3국의 무역경쟁력 관계를 예측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HS 2단위 수출상품데이터를 활용하였다. HS 2단위 수출 상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유는, 먼저, 한·중·일의 무역경쟁력 비교를 동일한 상품단위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둘째, HS 1단위의 상품은 대상품목 숫자를 너무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 HS 2단위 상품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HS 2단위는 총 97개 상품으로 분류되며, 모든 수출입데이터는 무역협회로부터 구하였다.

수출유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우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경제학에서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에 의해 비교우위가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비에 입각한 비교우위의 연구는 생산비자료를 수집할 때 동일한 시점 및 동질적인 상품에 대하여 모든 국가에 걸쳐 조사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증적 연구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비가격경쟁력 요인들도 국제무역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비용만으로 국제무역의 비교우위를 증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비교우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비가격 요인들을 고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모든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현시비교우위(RC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더욱이 한·중·일 3국 간 산업별 통계를 이용하여 무역특화지수(TSI) 등의 일반화된 무역지수를 추출하여 한·중·일 3국 간 무역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중·일의 대 세계시장 및 대 미국시장에서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 그리고 한·중·일의 2국 간 산업별 경쟁력 비교 및 상호의존관계 변화를 통해, 한·중·일의 어떠한 품목이 어느 정도 경쟁력 우위 또는 열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제2장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장은 한·중·일 무역 현황을 고찰하고 설명하였다. 제4장은 한·중·일 3국간 무역의 발전과정 및 무역구조 변화를 설명하였고, 제5장은 RCA지수와 TSI지수를 이용하여 한·중·일 3국 간 무역경쟁력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 II. 선행 연구

한·중·일 무역경쟁력 분석과 관련한 기존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의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 대한 무역경쟁력 분석이라든지 하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최병철(1993)은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에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동향과 수출구조의 변화를 파악한 후, 경쟁관계로 발전한 한국과 중국의 제2의 수출시장인 일본시장에서의 품목별, 시장별로 한국과 중국 무역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쟁력이 전 품목에 걸쳐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지난 90년대 이후 무역지수 흑자가 계속되면서 세계경제 무대에서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중국 교역량이 92년에 11위로 올라섰으며 한국은 중국에게 추월을 당하였다. 특히 일본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합이 예상되는 품목을 예측하여 기술개발과 특화 품목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장동철(2001)은 ‘한국과 중국의 대미시장 수출경쟁력 비교 연구’ 논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미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비교연구 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 초에, 그리고 중국은 1970년대 말에 각각 본격적인 수출주도 공업화전략을 채택한 이래 양국의 수출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무역구조는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형 무역구조로 바뀌었다. 중국의 무역구조는 중화학공업 부문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경쟁력을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및 무역특화도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수원(2010)은 ‘중국 가전산업의 수출경쟁력: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하여’ 논문에서 중국 가전산업의 무역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무역특화지수

(TSI), 국별비교우위지수(CAC), 시장점유율지수(MSI)를 이용하여 중국 가전기기의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도출하고 비교평가 하였다. 품목별, 국별 비교우위지수는 중국이 일본,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 미국과 달리 환국에 대한 비교우위품목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상수·최의현(2001)은 ‘한·중 수출경쟁력 분석: 미국 및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한·중 무역경쟁력을 미국과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미국 및 일본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강화가치의 하락으로 미국 및 일본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강화되었지만, 대미, 대일 수출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덜하였으며 중국 제품과의 경합관계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한국의 경쟁력은 중국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수출품의 개발 등을 통해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한국의 당면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분석하였다.

유용상(1997)은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 논문에서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시장과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의 무역경쟁력을 분석하고 그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무역경쟁력 결정요인 중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무역경쟁력의 성격을 규명하였는데, 분석결과, 임금, 노동생산성, 환율, 금리 등에서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유리하여 중국의 강한 가격경쟁력이 한국의 시장점유율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주영(2005)은 ‘미국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쟁력’ 논문에서 미국시장에서의 한·중 무역경쟁력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의 대외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주요수출품목이 섬유류, 가전제품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승용차로 바뀌었다. 한국경제의 대외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중국의 부상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 무역경쟁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의 대미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본·기술 집약적 부문에서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정책실행이 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신현곤(2004)은 ‘한·중·일 철강 무역경쟁력 비교분석과 시사점’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세계 최대의 철강 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철강업 역시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수출시장공력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수출경합도 지수, 지장점유율 및 RCA지수 등을 활용하여 3국간 수출경합의 정도 및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중·일 3국간은 세계시장의 약 20%를 점하는 철강수출국임과 동시에 세계 최대의 철강 소비지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상대적 부진 속에서도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3국간의 상호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수출경합도 지수를 활용한 3국간 철강 수출 경합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일 간에는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수출경합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중 간에도 경합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홍준석(2002)은 ‘한·중 간 수출경쟁력 비교우위 분석: 양국 간 제조업을 중심으로’에서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자국의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구성이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자본집약적 제품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한국, 중국 간 수출경합 상품이 과거의 경공업제품에서 이제는 자본집약적 제품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국 상품이 한국의 수출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정동·김경희(2010)는 ‘중국시장에서 인천·부산의 품목별 수출경쟁력 비교분석’에서 중국의 WTO가입 후 한·중 간 품목별 무역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한국과의 품목별 경합관계가 눈에 띄게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아·신경수(2007)는 ‘기술 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한·중·일 수출경쟁력 분석’에서 일본을 고위 기술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었고, 저위 기술 산업에서는 경쟁력을 갖지 못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고위 기술 산업은 일본과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고위 기술 산업은 일본보다 높은 경쟁력이 낮았고, 중·

저위 기술 산업과 저위 기술 산업은 일본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저위 기술 산업과 중·고위 기술 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다수의 세부산업에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위 기술 산업과 중·고위 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해 중국의 추격에서 경쟁력을 지켜야 하며 일부 품목에 특화된 경쟁력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Ⅲ. 한·중·일 무역 현황

#### 1. 한국의 무역 현황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지역주의의 확산이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요인 외에도 동북아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과 같은 역내 시장적 변화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은 역내에서 제도적 경제통합이 결성될 경우 무역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반면 무역전환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지역주의의 확산이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요인 외에도 동북아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과 같은 역내 시장적 변화요인이 작용하고 있다.<sup>1)</sup> 특히 동북아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은 역내에서 제도적 경제통합이 결성될 경우 무역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반면 무역전환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sup>2)</sup>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2008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는 2009년 들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2009년 총 수출액은 -13.9%로 감소하고, 수입은 -25.8%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 한국의 수출액은 28.3%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입액은 31.6%를 기록하여 증가했다.

1) 손일태, '한·중·일 및 아세안의 교역구조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FTA 전략', 무역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7. p. 269

2) 김지현, '한국과 중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 및 보완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 31

<표 3-1> 한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무역수지
2001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	162,471	8.0	152,126	7.8	10,345
2003	193,817	19.3	178,827	17.6	14,990
2004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	284,419	12.0	261,238	16.4	23,181
2006	325,465	14.4	309,383	18.4	16,082
2007	371,489	14.1	356,846	15.3	14,643
2008	422,007	13.6	435,275	22.0	-13,268
2009	363,534	-13.9	323,085	-25.8	40,449
2010	466,384	28.3	425,212	31.6	41,172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표 3-2>은 한국의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추이 보여주고 있다.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이 2001~2010년 기간 동안 1위 수출품목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 한편 2001년과 2010년의 주요 수출품목을 비교해 보면, 2001년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HS 87), 선박과 수상구조물(HS 89),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HS 90)등 첨단 및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이 절반 수준이었다. 이외에 유기화학품(HS 29),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 39), 관물 및 시멘트(HS 27)의 경공업제품도 있으나 철강(HS 72), 철강의 제품(HS 73)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즉 한국 수출제품은 2000년대에 이미 첨단 및 중화학공업제품으로 전환되었다. 2010년의 주요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 철강(HS 72), 철강의 제품(HS 73),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HS 87), 선박과 수상구조물(HS 89),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HS 90)과 관물 및 시멘트(HS 27), 유기화학품

(HS 29),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 39)이다. 2001년과 비교하면 상품 10대 구성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표 3-2>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년도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HS 85									
2	HS 84	HS 87	HS 87	HS 87	HS 89	HS 87				
3	HS 87	HS 84								
4	HS 89	HS 87	HS 89							
5	HS 39	HS 39	HS 39	HS 39	HS 27	HS 27	HS 27	HS 27	HS 90	HS 90
6	HS 27	HS 72	HS 72	HS 72	HS 39	HS 90	HS 90	HS 90	HS 27	HS 27
7	HS 72	HS 27	HS 27	HS 27	HS 72	HS 39	HS 39	HS 72	HS 39	HS 39
8	HS 29	HS 29	HS 29	HS 29	HS 90	HS 72	HS 72	HS 39	HS 72	HS 72
9	HS 54	HS 54	HS 71	HS 90	HS 29					
10	HS 60	HS 71	HS 90	HS 73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표 3-3>은 한국의 상위 10대 수입품목의 추이 보여주고 있다. 관물 및 시멘트(HS 27),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은 2001~2010년 기간 동안 각각 1위, 2위 수입품목으로 자리차지고 있다. 한편 2001년과 2010년의 주요 수입품목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관물 및 시멘트(HS 27),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HS 90), 철강(HS 72)등 제품의 비중이 지속적인 상위 5위 수준이었다. 이외에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HS 71)는 수입 10대 품목에서 사라졌고 동과 그 제품(HS 74)은 새로운 품목으로 나타난다.

<표 3-3> 한국의 10대 수입 품목

년도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HS 27									
2	HS 85									
3	HS 84									
4	HS 90	HS 90	HS 72							
5	HS 72	HS 72	HS 90							
6	HS 29	HS 26	HS 29	HS 26						
7	HS 39	HS 39	HS 71	HS 39	HS 39	HS 26	HS 26	HS 29	HS 26	HS 29
8	HS 71	HS 71	HS 39	HS 87	HS 26	HS 39				
9	HS 26	HS 87	HS 87	HS 26	HS 87	HS 74	HS 87	HS 87	HS 87	HS 87
10	HS 87	HS 38	HS 26	HS 38	HS 74	HS 87	HS 73	HS 73	HS 38	HS 74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 2. 중국의 무역 현황

중국의 대외무역은 자국의 무역정책, 경제개발 전략, 국제정치 상황 등의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대외무역의 전개과정을 국면별로 살펴보면 社會主義圈一邊倒期(1950~1959년),自力更生期(1960~1971년),貿易擴大期(1972~1978년),對外開放期(1979년 이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sup>3)</sup> 그러나 본 연구의 관점이 개혁개방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대외무역 동향 설명도 이 시기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WTO 가입은 중국의 무역규모를 급팽창시킴으로써 세계교역에서 중국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중국의 교역규모는

3) 신지현, 한·중 간 무역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13

2001년 5,1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2조 9,523억 달러로 증가하여 세계교역에서 중국 순위가 2001년 6위에서 2010년 2위로 부상하였다. 수출규모는 2001년 2,667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조 5,768억 달러로 중국의 순위는 6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표 3-4> 중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무역수지
2001	266,661	7.0	243,567	8.2	23,094
2002	325,642	22.1	295,303	21.2	30,339
2003	438,472	34.6	413,096	39.9	25,376
2004	593,647	35.4	560,811	35.8	32,836
2005	762,327	28.4	660,222	17.7	102,105
2006	969,324	27.2	791,794	19.9	177,530
2007	1,218,156	25.7	956,261	20.8	261,895
2008	1,428,869	17.3	1,131,469	18.3	297,400
2009	1,200,362	-16.0	1,000,578	-11.6	199,784
2010	1,576,817	31.4	1,375,451	37.5	201,366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2009년까지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2009년 수출액은 -16.0%로 감소하고 수입액은 -11.6%를 기록하여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 수출액과 수입액 다시 31.4%, 37.5%로 각각 올라갔다. 중국의 무역수지는 2001년~2010년 기간 동안 흑자였고 그 흑자금액은 대충 증가하고 있는 추이가 있다.

4) 홍준석, 한·중 간 수출경쟁력 비교우위 분석: 양국 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21

<표 3-5> 중국의 10대 수출 품목

년도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HS 85									
2	HS 84									
3	HS 62	HS 61								
4	HS 61	HS 62	HS 62	HS 72	HS 62	HS 62				
5	HS 64	HS 95	HS 95	HS 94	HS 90	HS 90	HS 72	HS 62	HS 94	HS 90
6	HS 95	HS 64	HS 64	HS 90	HS 94	HS 94	HS 90	HS 73	HS 90	HS 94
7	HS 27	HS 94	HS 94	HS 64	HS 95	HS 73	HS 73	HS 90	HS 73	HS 89
8	HS 94	HS 27	HS 27	HS 95	HS 64	HS 72	HS 94	HS 94	HS 89	HS 73
9	HS 42	HS 39	HS 90	HS 27	HS 73	HS 95	HS 87	HS 87	HS 64	HS 87
10	HS 39	HS 90	HS 39	HS 73	HS 39	HS 87	HS 95	HS 89	HS 87	HS 39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표 3-6> 중국의 10대 수입 품목

년도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HS 85									
2	HS 84	HS 27	HS 84	HS 27						
3	HS 27	HS 84	HS 27	HS 84						
4	HS 39	HS 39	HS 90	HS 26	HS 26	HS 26				
5	HS 72	HS 90	HS 72	HS 39	HS 39	HS 39	HS 26	HS 90	HS 90	HS 90
6	HS 90	HS 72	HS 39	HS 29	HS 29	HS 26	HS 39	HS 39	HS 39	HS 39
7	HS 29	HS 29	HS 29	HS 72	HS 72	HS 29	HS 29	HS 29	HS 29	HS 87
8	HS 74	HS 87	HS 87	HS 26	HS 26	HS 72	HS 74	HS 87	HS 74	HS 29
9	HS 87	HS 74	HS 26	HS 87	HS 74	HS 74	HS 72	HS 74	HS 87	HS 74
10	HS 26	HS 26	HS 74	HS 74	HS 87	HS 87	HS 87	HS 72	HS 72	HS 12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표 3-5>은 중국의 상위 10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2001년~2010년까지 수출 1위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위 수출상품은 2001년~2010년까지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1년~2005년까지 3위를 하였던 의류와 그 부속품(HS 62)과 2006년~2010년까지 3위를 한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HS 61)과 같은 경공업제품이 상위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표 3-6>은 중국의 상위 10대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2001년~2010년까지 수입 1위 품목은 수출 1위 품목같이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위 수입상품은 2007년까지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으로 나타났다. 2위 수출품목 역시 2001년~2010년까지 2위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2001년~2005년까지 3위를 하였던 의류와 그 부속품(HS 62)과 2006년~2010년까지 3위를 한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HS 61)과 같은 경공업제품이 상위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 3. 일본의 무역 현황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투자활동이 활발하고 상호의존도가 심화되어 왔다.<sup>5)</sup>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은 지역협정에 적극적 참여함으로써 지역정책의 대전환을 보이고 있다.<sup>6)</sup>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와 이에 뒤따른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는 일본의 수출부진, 현지에 진출한 직접투자회사의 도산이나 실적의 부진, 해외투자재산의 평가의 손실 등 일본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야기하였다.<sup>7)</sup>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와 동아시아 경제와의 밀접한 관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일본이 아시아의 지역 내에서 경제

5) 정인교, 한·일 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자원부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22

6) 박형래·장유식,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5호, 2010, pp.231-235

7) 김종모, 한·일 간 수산물 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29

적인 리더로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일본의 수출입 현황은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들어 수출입 모두 감소하고 있고 무역흑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2008년에 세계경기 불황지속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하기에 비해 수입이 약간 증가하였다. 그런데 2009년 2008년에 비해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수입상품 발굴, 수입촉진세제 신설, 정책금융의 무역보험 활용 등 다양한 수입확충 대책을 수행하고 있다.<sup>8)</sup>

<표 3-7> 일본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엔, %)

년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무역수지
2001	48,979	-5.2	42,416	3.6	6563
2002	52,109	6.4	42,228	-0.4	9881
2003	54,548	4.7	44,362	5.1	10186
2004	61,182	12.2	49,176	10.9	12006
2005	65,660	7.3	56,882	15.7	8778
2006	75,254	14.6	67,164	18.1	8090
2007	83,931	11.5	73,136	8.9	10795
2008	81,048	-3.4	78,892	7.9	2156
2009	54,182	-33.1	51,378	-34.9	2804
2010	67,405	24.4	60,639	18.0	6766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표 3-8>은 일본의 상위 10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2001년~2010년까지 수출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이나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HS 87),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으로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 비교하면 관물 및 시멘트(HS

8) 전혜연,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16-21

27)는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나타난다.

<표 3-8> 일본의 10대 수출 품목

년도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HS 85	HS 87	HS 85	HS 85	HS 87	HS 87	HS 87	HS 87	HS 85	HS 84
2	HS 84	HS 85	HS 87	HS 87	HS 85	HS 85	HS 84	HS 84	HS 87	HS 87
3	HS 87	HS 84	HS 85	HS 85	HS 84	HS 85				
4	HS 90	HS 00	HS 72	HS 00	HS 00					
5	HS 00	HS 90	HS 00	HS 90	HS 90					
6	HS 72	HS 90	HS 72	HS 72						
7	HS 29	HS 39	HS 39	HS 39	HS 89	HS 39				
8	HS 39	HS 29	HS 29	HS 29	HS 39	HS 89				
9	HS 89	HS 29	HS 29							
10	HS 73	HS 40	HS 40	HS 40	HS 73	HS 73	HS 73	HS 27	HS 73	HS 27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표3-9>은 일본의 상위 10대 수입품목의 추이 보여주고 있다. 관물 및 시멘트(HS 27),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은 2001~2010년 기간 동안 각각 1위, 2위 수입품목으로 자리차지고 있다. 한편 2001년과 2010년의 주요 수입품목을 비교해 보면, 2001년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은 관물 및 시멘트(HS 27),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HS 90),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HS 03)등 제품의 비중이 상위 5위 수준이었다. 이외에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HS 44)는 수입 10대 품목에서 사라졌고 동과 의료용품(HS 30)은 새로운 품목으로 나타난다.

<표 3-9> 일본의 10대 수입 품목

년도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HS 27									
2	HS 85									
3	HS 84									
4	HS 90	HS 26	HS 26	HS 26	HS 26					
5	HS 03	HS 03	HS 87	HS 87	HS 26	HS 26	HS 90	HS 90	HS 90	HS 90
6	HS 62	HS 87	HS 03	HS 44	HS 87	HS 87	HS 87	HS 87	HS 29	HS 29
7	HS 44	HS 62	HS 62	HS 03	HS 03	HS 29	HS 29	HS 29	HS 30	HS 30
8	HS 87	HS 44	HS 44	HS 62	HS 29	HS 62	HS 44	HS 71	HS 62	HS 87
9	HS 29	HS 29	HS 29	HS 29	HS 62	HS 44	HS 62	HS 62	HS 61	HS 39
10	HS 61	HS 61	HS 61	HS 26	HS 44	HS 03	HS 71	HS 39	HS 87	HS 61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 IV. 한·중·일 3국간 무역의 발전 과정 및 무역구조 변화

한국·중국·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대외지향적인 성장전략을 택했다.<sup>9)</sup> 한·중·일 3국간의 무역이 증대되면서 상호간의 무역의존도도 높아졌다. 한·중 무역이 한국의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9.9%이며, 일본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서 한국의 동북아 역내 무역비중은 3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중 무역이 중국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이며, 일본과의 교역은 중국 무역규모 전체에서 10.9%를 차지함에 따라 중국의 동북아 무역비중은 17.5%를 차지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한국 중국과의 무역비중은 각각 6.2%, 17.7%를 차지하여 일본의 동북아 역내 무역비중은 23.8%인 것으로 나타난다.

### 1. 한·중 무역의 발전과정 및 무역구조 변화

#### 1) 한·중 무역의 발전 과정

1992년 8월 한·중 공식수교 이래 양국 무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중국 세 관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양국 간의 무역액은 50.3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5 년은 1119.3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7년에는 1599억 달러로 수교 당시의 약 32 배를 기록하였고 양국 무역은 계속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2008년에는 1861.1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대비 16.2%나 증가하였다.

수교 이후 한·중 간 무역의 발전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sup>10)</sup>

9) 이재득, '중국과 한국의 제품별 산업내 무역 비교우위 및 무역수지기여도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7, p.143

첫째 단계(1992년~1997년)는 제 1확대기로 양국 무역이 간접 무역에서 직접 무역으로 전 환되고 무역규모도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둘째 단계(1998년~2001년)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중국도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양국 무역이 소강상태를 거치게 된다. 셋째 단계(2002년~2005년)는 제 2의 발전기로서 양국 간 투자와 무역규모가 폭 발전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상품구조에서는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넷째 단계(2005년 하반기~현재)는 한·중 무역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이다.

현재 한국은 이미 중국의 제3위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제 1위의 무역 상대국이자 제1위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양국은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중 수교 15년 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약 34조원의 GDP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1992년~2006년 중 대 중국 순수출(수출-수입)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0.46% 이었고 특히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을 수출에 의존하던 2006~2010년 시기에 대 중국 무역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무역이 이렇게 신속히 발전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한·중 양국은 세계에서 모두 경제적인 활력이 있는 국가이고 고속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한·중 양국 간 자원, 노동력, 산업 구조, 상품 시장, 자본, 기술 및 기업 관리 등의 방면에서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양국 기업은 양 국 체제개혁과 시장개방의 성과를 나누고 있다.<sup>12)</sup>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활발한 투자가 있었던 점이다. 투자는 양국 무역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되었다.

10) 우지효, 한·중·일 수산물 부문에 있어 한국의 경쟁력 수준과 수출전략품목 분석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18

11) 전구, 한·중 간 업종별 무역특화 및 산업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12

12) 中国统计年鉴, 中國 海關統計局, 2010, pp. 48-53

<표 4-1>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관계 발전 과정

연도	주요내용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수교</li> <li>· 노태우 대통령 방중</li> <li>·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협정 체결</li> <li>· 한·중 간 무역협력협정 체결</li> <li>· 한·중 간 투자보장협정</li> <li>·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li> </ul>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li> <li>· 한·중 무역 100억 달러 달성</li> <li>· 김영삼 대통령 방중</li> <li>·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설립</li> <li>· 세관협력협정</li> </ul>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간 전면적인 협력농반관계 구축 합의</li> <li>· 한·중 무역 500억 달러 달성</li> </ul>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 부상</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무역액 1,000억 달러 달성</li> </ul>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격상시킨 것을 달성</li> <li>· 2012년 양국 간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2년 앞당겨 2010년 까지 달성하기로 서명</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무역액 1,560억 달러 달성</li> </ul>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자유무역구의 설립에 대한 합의함</li> </ul>

자료: 관련 자료를 재작성함.

## 2) 한·중 상호간 무역의 교역 현황

2001년도에 양국의 무역규모가 314.9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1991년도 대비 약 7배, 1992년도 대비 약 5배로 급증하여 한·중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가 외 교관계 수립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sup>13)</sup> 2001년 한·중 양국 간 교역은 세계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그간의 신장세가 크게 둔화하였는데 대 중국 수출이 181.9억 달러에 그 치면서 전년대비 1.4%가 감소했으며, 대 중국 수출부진은 섬유류와 전기·전자 분야 에서, 수입부진은 철강류 분야에서 두드러 졌다.

2002년 한·중 교역 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 말에는 대만을 제외한 중국과 홍콩을 합친 대 중국 수출 규모가 12.2%인 미국을 앞서 제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여 한 국의 제1위 수출시장임을 확인해 주었다. 2002년도 대 중국 수출은 238억 달러로 전년대비 30.6%증가하였고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8%증가 하였으며 무역흑자는 63.5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 모두 20.5억 달러를 기록하는 실적을 보였다.

2003년 대 중국 수출은 351억 달러로 전년대비 47.8%증가하였고 수입은 2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5.9%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132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68.5억 달러 증가하였다.

2004년 대 중국 수출은 497.6억 달러로 전년대비 41.7%증가하였고 수입은 295억 달러로 전년대비 35.0%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201.9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68.9억 달러 증가하였다.<sup>14)</sup>

2005년 대 중국 수출은 6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4.4%증가하였고 수입은 386억 달러로 전년대비 30.6%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233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64.1억 달러 증가하였다.

2006년 대 중국 수출은 695억 달러로 전년대비 12.2%증가하였고 수입은 486억 달러로 전년대비 25.6%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209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24억 달러 감소하였다.

13) 박형래·장유식,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5호, 2010, pp.233-239

14) 중국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2011, (<http://www.stats.gov.cn/>)

2007년 대 중국 수출은 820억 달러로 전년대비 18.0%증가하였고 수입은 630억 달러로 전년대비 29.8%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190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9억 달러 감소하였다.

2008년 대 중국 수출은 9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1.5%증가하였고 수입은 769억 달러로 전년대비 22.1%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145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45억 달러 감소하였다.

2009년 대 중국 수출은 867억 달러로 전년대비 5.10%증가하였고 수입은 542억 달러로 전년대비 29.5%감소하였으며 무역흑자는 325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80억 달러 증가하였다. 2009년까지 한·중 무역 교역액은 1992년 대비 약 30배 증가하였다.

2010년 대 중국 수출은 951억 달러로 전년대비 9.65%증가하였고 수입은 581억 달러로 전년대비 9.98%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370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45억 달러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실행액 기준으로 1992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sup>15)</sup> 2011년 3월까지 한국기업의 화동지역(상해, 강소성, 절강성)에 대한 직접투자는 19억 7,2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투자의 31.7%를 차지한다. 화북지역(북경, 천진, 하북성)에 대한 투자는 14억 3,500만 달러로 21.6%를 차지한다. 대 산동성 투자금액은 2005년까지 한국기업의 최대투자지역이었으나, 2006년 강소성 대한 투자가 산동성을 넘어 3.6%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중 산업구조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4,646건의 투자 중에서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2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3,988건으로 총투자 건수 중 85.8%의 높은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sup>16)</sup> 허가금액에 있어서도 4,464억 달러로 80%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5) 한국수출입은행, 무역통계, 2011. (<http://www.koreaexim.go.kr/>)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현황, 2011. (<http://www.koreaexim.go.kr/>)

<표 4-2> 한국의 대 중국 업종별 해외 투자 현황(2010년 3월)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대분류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금액
Total	43,493	47,147,819	33,698,868
농업, 임업 및 어업	541	228,157	120,308
광업	177	380,693	247,794
제조업	33,887	35,500,389	26,332,86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9	44,044	30,01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8	13,486	7,332
건설업	618	1,306,398	788,251
도매 및 소매업	3,375	2,355,877	1,854,345
운수업	325	473,987	327,048
숙박 및 음식점업	1,157	908,766	487,1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17	344,746	226,435
금융 및 보험업	125	2,158,552	1,471,797
부동산업 및 임대업	679	1,569,037	722,2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8	921,982	630,91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33	81,437	52,4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200	58
교육 서비스업	190	56,094	28,4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1	30,273	15,9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8	588,778	241,54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0	169,275	98,6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1	800	500
국제 및 외국기관	1	14,848	14,84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 2011. (<http://www.koreaexim.go.kr/>)

### 3) 한국의 대 중국 품목별 수출

<표 4-3>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산업별 분포

(단위: 백만 달러)

	1992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품목	2,654	18,455	61,915	69,459	81,985	91,398	86,703	116,838
1차 산품	17	258	495	551	781	1,283	1,076	1,751
공산품 합계	2,636	18,197	61,420	68,908	81,204	90,106	85,627	115,086
경공업제품	678	4,273	5,120	5,239	5,320	5,143	4,748	5,917
중화학제품	1,958	13,923	56,300	63,669	75,884	84,964	80,879	109,169
IT제품	94	3,014	18,726	21,703	28,700	28,789	33,551	46,399
기타	1,864	10,909	37,575	41,966	47,184	56,174	47,328	62,771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 품목에서 공제품의 비중은 2005년부터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산품 중 중화학제품의 비중은 2005년 6367천만 달러에서 2010년 10,91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IT제품의 수출은 2005년부터 매년 약 6000백만 달러 속도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차 산품은 전 품목 수출에서 사소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4> 한국의 대 중국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HS 85	24,830	HS 85	25,314	HS 85	24,500	HS 85	32,971
2	HS 84	9,975	HS 90	12,322	HS 90	14,897	HS 90	21,189
3	HS 90	9,539	HS 84	10,200	HS 84	9,448	HS 84	14,404
4	HS 29	9,039	HS 29	9,046	HS 29	7,768	HS 29	9,259
5	HS 39	5,772	HS 27	8,883	HS 39	7,132	HS 39	8,490
6	HS 27	5,493	HS 39	6,635	HS 27	5,014	HS 27	7,272
7	HS 87	2,996	HS 72	3,614	HS 72	3,609	HS 87	5,161
8	HS 72	2,959	HS 87	2,792	HS 87	3,388	HS 72	3,794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품목은 수교 초기 공업용 원부자재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첨단전자부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표 4-4>에서 보는 바 같이 2002년 대 중국 수출 3대 품목은 HS 2단위 기준으로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원자료·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 정밀기기와 의류용기기(HS 90)등에서 최근 2010년에는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 4) 한국의 대 중국 품목별 수입

한국의 대 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전자(HS 85), 철강(HS 72), 보일러 및 기계류(HS 84), 광물성 연료(HS 27), 알루미늄(HS 76), 의류(HS 62), 유기화합물(HS 29), 철강제품(HS 73), 광학기기(HS 90) 등이다.<sup>17)</sup> 이 가운데 철강, 보일러, 기계류, 광물성 연료 등은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입은 중국 기업들의 수출이외에도 현지에서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가공 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량도 많다.

<표 4-5> 한국 대 중국 품목 수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HS 85	17,013	HS 85	20,017	HS 85	17,045	HS 85	21,765
2	HS 72	7,946	HS 72	14,207	HS 84	6,854	HS 84	8,696
3	HS 84	6,787	HS 84	7,577	HS 72	4,241	HS 72	6,307
4	HS 27	2,631	HS 27	9,046	HS 73	2,874	HS 73	3,318
5	HS 62	2,247	HS 27	4,135	HS 90	1,727	HS 90	2,885
6	HS 73	2,177	HS 73	3,139	HS 27	1,704	HS 29	1,986
7	HS 76	1,668	HS 62	2,092	HS 29	1,562	HS 27	1,904
8	HS 90	1,482	HS 90	1,932	HS 62	1,499	HS 62	1,853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17) 전구, 한·중 간 업종별 무역특화 및 산업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4

품목별 수입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광학기기, 보일러, 기계, 유기화합물, 광물성연료, 철강, 일반 차량, 동과 제품, 알루미늄 순으로 중국이 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이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대 한국 수출 품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가공무역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sup>18)</sup>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10대 수입 품목 중 상위 품목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 자체조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4-6> 한국의 대 중국 수입의 산업별 분포

(단위: 백만 달러)

	1992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품목	3,725	12,799	38,648	48,557	63,028	76,930	54,246	71,574
1차 산품	1,719	3,102	6,191	6,218	7,703	8,798	5,684	6,812
공산품	2,006	9,697	32,458	42,339	55,325	68,132	48,562	64,761
경공업제품	976	2,801	6,226	8,132	9,590	9,255	7,358	9,762
중화학제품	1,030	6,896	26,232	34,207	45,734	58,878	41,204	54,999
IT제품	28	2,328	8,539	11,750	15,966	19,142	16,617	22,320
기타	1,002	4,568	17,693	22,456	29,768	39,736	24,587	32,679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 2. 한·일 무역의 발전 과정 및 무역구조 변화

### 1) 한·일 무역의 발전 과정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다양한 경제협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한국에 도입된 일본 기술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결과 한국과 일본 양국은 주요 교역대상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19)</sup> 2010년까지

18) 박승록, 한·중·일 기업경쟁력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2007, p. 69

지 일본은 한국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2위 수입대상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6위 수입대상국이다.

그러나 1965년 이후 한국은 매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적자규모는 361억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규모를 기록했던 2008년 327억 달러를 이미 돌파하였다. 이처럼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심화된 이유는 한국은 대외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본 수입이 증가하는 수입 유발형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재추진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04년 양국은 제조업과 농업 개방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협상 중단의 근본적인 배경은 대일본 기술의존, 일본의 저조한 대한국 투자, 비대칭적인 한·일 관세 구조이다.<sup>20)</sup>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1965년부터 대일본 무역역조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에는 반일감정을 극복하고 국교정상화의 당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후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1990년대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2001년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발표되면서 부품과 소재산업 발전을 통한 무역역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sup>21)</sup>

대일본 무역역조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연구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교역현황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업종에 기초한 한국과 일본의 분업 및 산업관계 연구가 많아졌다. 특히 2001년 정부의 부품과 소재산업 지원이 시작되면서 관련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업종을 기준으로 양국 간 업종별 분업관계, 생산구조 등을 분석

19) 오동윤·박상일, '한국의 대일본 무역역조와 양국 간 교역품목별 경쟁력 비교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동북아학회, 2011, pp. 247-259

20) 김종모, 한·일 간 수산물 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43

21) 윤진은, 한·일 FTA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39

한 것이다. 그러나 품목과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무역역조는 품목별로 발행하는데, 대응방안은 업종별로 제시하는 괴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핵심부품으로 쓰이는 IT제품에서 심각한 무역역조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기존 연구의 대응방안은 자동차산업이 정책지원의 대상이 된다. 자동차산업에는 철강, 기계, 금속, IT 등 수많은 관련 업종이 있다. IT제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무역역조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2) 한·일 상호간 무역의 교역 현황

2010년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281억 달러, 수입액은 643억 달러이다. 2010년 교역규모는 연간 역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2008년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361억 달러로 역대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8년을 넘어섰다. 한국은 일본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매년 대일본 무역역조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994년 100억 달러, 2004년 200억 달러, 2008년 300억 달러를 돌파한바, 빠른 속도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sup>22)</sup>

그러나 대 세계 교역 대비 대일본 교역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0년 대일본 수출비중은 6%, 수입비중은 15.2%이다. 이처럼 대일본 교역비중이 낮아진 것은 한국의 대 중국 교역비중이 매년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대 중국 수출비중은 25%로 일본의 4배 수준이며, 수입비중은 16.9%로 일본의 15.2를 상회한다.

산업별 교역을 살펴보면, 한국은 1차산품만 무역수지 흑자일 뿐 나머지 모든 산업에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했던 경공업제품도 2002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바, 2010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30억 달러이다. 한편 중화학공업제품의 2010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310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9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성질별 교역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일본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증가가 빠르게

22) 이흥배·오동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생산기술격차에 따른 산업 및 무역의준관계변화', 비교경제연구 제 16권 제1호, 박영사, 2009, pp. 121-129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재의 대일본 수입증가도 두드러진다. 2010년 한국의 원자재 대일본 수출은 122억 달러, 수입은 290억 달러로 수입규모가 수출규모의 2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수출증가 속도보다 수입증가 속도가 빠르며, 수출규모와 수입규모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2010년 한국의 자본재 대일본 수출은 94억 달러, 수입은 264억 달러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70억 달러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출은 18억 달러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68억 달러 증가하였다. 2010년 한국의 소비재 대일본 수출은 39억 달러, 수입은 29억 달러로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수출은 15억 달러 감소한 반면 수입은 8억 달러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소비재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성질별 대일본 교역비중을 살펴보면, 원자재의 교역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은 소비재 비중이, 수입은 자본재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2000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출비중은 각각 36.2%, 37.2%, 26.5%이다. 그러나 2010년 수출비중은 원자재가 47.7%로 상승한 반면 소비재는 15.3%로 하락하였다. 한편 2000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비중은 각각 31.8%, 61.7%, 6.5%로 자본재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10년 수입비중은 원자재 비중이 49.6%로 상승한 반면 자본재 비중은 45.3%로 하락하였다.

부품·소재 교역을 살펴보면, 부품·소재 교역은 정부의 부품·소재 진흥이 시작된 2001년 이후 큰 변화를 보였다. 국산 부품·소재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완전히 정착되었다. 2010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711억 달러이다. 한편 대일본 교역은 수출입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은 220억 달러(2010년)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대세계 교역대비 대일본 교역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비중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대일본 투자(실제 투자기준)는 200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까지 한국의 대일본 투자규모는 3억 386만 달러이며, 이 중 대기업의 투자는 1억 9318만 달러, 중소기업의 투자는 9640만 달러이다. 한국의 대

일본 투자는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sup>23)</sup> 이에 반해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5년 이후 중소기업의 투자비중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007년 이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1988년 올림픽,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큰 변화를 보였다.<sup>24)</sup> 1988년 대한국 투자규모(신고기준)는 7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8년 대한국 투자는 5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999년 18억 달러로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2001년, 2003년, 2007년을 제외하면 10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 3) 한국의 대 일본 품목별 수출

<표 4-7> 한국의 대 일본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HS 85	7,004	HS 85	6,523	HS 85	5,528	HS 85	6,315
2	HS 27	3,648	HS 27	3,926	HS 27	2,327	HS 27	3,687
3	HS 84	2,731	HS 84	3,067	HS 84	2,262	HS 72	2,860
4	HS 72	2,422	HS 72	2,944	HS 72	1,681	HS 84	2,732
5	HS 90	2,193	HS 90	1,472	HS 90	1,128	HS 39	1,538
6	HS 39	1,084	HS 39	1,369	HS 39	1,105	HS 90	1,397
7	HS 73	877	HS 29	1,088	HS 73	846	HS 73	975
8	HS 29	845	HS 73	1,004	HS 29	794	HS 29	971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23) 이흥배, '한·중·일 일반기계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FTA 대응방안', 동북아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6, p. 122

24) 김동우, '한·중·일·미 무역경쟁력 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40

<표 4-7>에서 품목별 교역을 살펴보면, 특정품목에 대한 교역비중이 높다. 한국의 대 일본 최대 수출품은 전기기기(HS 85)로 2010년 수출액은 57억 달러로 전체 대일본 수출의 22%를 차지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밖에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 연료(HS 27), 철강(HS 72), 기계류(HS 84), 플라스틱(HS 39) 등이다. 특히 플라스틱(HS 39), 정밀기기(HS 90), 유기화학품(HS 29)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4-8>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의 산업별 분포

(단위: 백만 달러)

	1992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품목	11,599	20,466	24,027	26,534	26,370	28,252	21,771	28,176
1차 산품	1,994	1,933	1,630	1,683	1,684	2,074	2,408	2,966
공산품	9,605	18,533	22,397	24,851	24,686	26,178	19,363	25,210
경공업제품	4,186	2,722	2,086	1,912	1,832	2,008	1,938	2,378
중화학제품	5,419	15,811	20,312	22,940	22,854	24,170	17,425	22,832
IT제품	953	5,945	6,119	7,959	8,388	6,884	5,710	6,722
기타	4,466	9,867	14,193	14,980	14,466	17,286	11,715	16,110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 4) 한국 대 일본 품목별 수입

한국의 대일본 최대 수입품목은 기계류로 2010년 수입액은 114억 달러로 전체 대일본 수입의 19.6%를 차지한다. 이밖에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 전기기기, 플라스틱, 정밀기기 등이다. 상위 10대 수입품목 중 지난 10년간 수입규모를 유지하는 품목은 전기기기 하나뿐이며, 나머지 9개 품목은 수입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최대 수출품인 전기기기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바, 한국산 전기기기의 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sup>25)</sup>

25) 오동윤·박상일, '한국의 대일본 무역역조와 양국 간 교역품목별 경쟁력 비교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동북아학회, 2011. p. 263

<표 4-9> 한국의 대 일본 품목 수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07		2008		2009		2010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HS 85	10,694	HS 84	11,025	HS 85	8,477	HS 84	12,650
2	HS 84	10,363	HS 72	10,767	HS 72	8,152	HS 72	10,152
3	HS 72	8,321	HS 85	10,712	HS 84	8,094	HS 85	9,194
4	HS 90	3,622	HS 39	3,665	HS 39	3,917	HS 39	5,341
5	HS 39	3,315	HS 90	3,557	HS 29	3,078	HS 90	4,387
6	HS 29	3,069	HS 29	3,231	HS 90	2,961	HS 29	3,820
7	HS 38	2,753	HS 38	2,636	HS 29	2,110	HS 38	2,961
8	HS 87	1,747	HS 87	1,929	HS 70	1,482	HS 87	2,001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표 4-10> 한국의 대 일본 수입의 산업별 분포

(단위: 백만 달러)

	1992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품목	19,458	31,828	48,403	51,926	56,250	60,956	49,428	64,296
1차 산품	297	516	654	877	1,131	1,343	1,270	673
공산품	19,161	31,312	47,749	51,049	55,119	59,613	48,158	62,623
경공업제품	1,508	1,596	4,201	4,219	3,832	4,278	4,322	5,674
중화학제품	17,653	29,715	43,548	46,830	51,287	55,335	43,836	56,949
IT제품	3,287	8,288	8,858	8,455	10,698	11,354	7,555	9,660
기타	14,366	21,428	34,690	38,374	40,589	43,981	36,281	47,288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 3. 중·일 무역의 발전 과정 및 무역구조 변화

#### 1) 중·일 무역의 발전 과정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지 2010년까지 9주년을 맞이한다. 중국이 WTO 가입은 무역,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FTA 등 통상 분야에서 커다란 정책 변화를 불러일으켰다.<sup>26)</sup>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일 경제협력 및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에서도 최근에 많은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중일 경제협력관계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후부터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냉각기(1945~72년)로 간헐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본격적인 정치 경제적 교류는 없었다. 둘째는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냉전구도가 와해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1972~91년)로, 이 시기에는 국교정상화 및 양국 간 평화우호를 다지는 시기였으며 무역 및 투자 등 경제교류는 본격화되지 못하였다.<sup>27)</sup> 셋째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된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1992~현재)에 해당되며, 이 시기에는 중일 간의 경제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면서 양국 간 정치 외교관계까지도 경제관계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중일관계는 큰 흐름에서 보면 냉각기를 거쳐 화해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총리시절의 야스쿠니 심사참배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일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중일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양국 간 정치 외교관계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양국정치인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둘러싼 중일간의 경쟁과 견제, 역사문제, 영토문제, 자원개발문제 등 전통적인 갈등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중일 관계는 화해와 냉각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선진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일관계의 긴밀도는 한국의 국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26) 이홍식·왕유중,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pp.154-157

27) 이준엽, '한·중·일 산업내 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동북아 국제분업체계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0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3, p.102

되므로 중일관계의 향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일관계가 지나치게 냉각되면 동아시아에서의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주도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반면에 중일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크다.<sup>28)</sup> 따라서 한국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일 양국의 관계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 2) 중·일 상호간 무역의 교역 현황

중·일 양국이 상호간에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성장해온 결과, 중국은 일본에 있어 2010년에 제1의 수출상대국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제3의 수출대상국이자 제1의 수입상대국으로 되었다.

<표 4-11> 중국의 대 일본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액	1,019	1,337	1,677	1,848	2,076	2,360	2,668	2,279	2,592
수출액	484	595	735	841	918	1,021	1,162	972	1,211
수입액	535	742	942	1,005	1,158	1,339	1,506	1,307	1,381

자료: 중국통계연감, 중국 국가통계국, 2011

양국 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중국의 대일 수출 규모는 1,162억 달러(전년대비 13.8% 증가로 2000년 이래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일 수입 규모는 1,506억 달러(전년대비 12.5%)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8년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2009년부터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대일수출 규모는 972억 달러(전년대비 -16.3%), 수입규모는 1,307억 달러(전년대비 -13.2%)로 감소되었으며 대일 무역적자규모도 3,35억 달러로 약간 축소되는

28) 김동우, 한·중·일·미 무역경쟁력 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64

추세이다.

현재 중국은 대외무역구조의 고도화와 산업발전을 토대로 과거 소비재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세계의 상품생산과 수출거점의 중심축으로 성장하였다.<sup>29)</sup> 이러한 중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듯이 일본의 대중 무역 패턴도 부품, 중간재의 대중수출 및 완제품의 대중수입의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이러한 긴밀한 무역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생산 분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양국 간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무역마찰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 3) 중국 대 일본 품목별 수출

<표 4-12> 중국의 대 일본 수출 품목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HS 85	17,013	HS 85	20,017	HS 85	17,045	HS 85	21,765
2	HS 72	7,946	HS 72	14,207	HS 84	6,854	HS 84	8,696
3	HS 84	6,787	HS 84	7,577	HS 72	4,241	HS 72	6,307
4	HS 27	2,631	HS 27	9,046	HS 73	2,874	HS 73	3,318
5	HS 62	2,247	HS 27	4,135	HS 90	1,727	HS 90	2,885
6	HS 73	2,177	HS 73	3,139	HS 27	1,704	HS 29	1,986
7	HS 76	1,668	HS 62	2,092	HS 29	1,562	HS 27	1,904
8	HS 90	1,482	HS 90	1,932	HS 62	1,499	HS 62	1,853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중국의 대일본 품목별 수출입구조는 <표 4-12>를 통해 알 수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류, 전기전자, 기계류이며,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

29) 박승록, 한·중·일 기업경쟁력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2007, p.142

전자, 기계류, 철강금속제품이다. 특히 일본의 기계류 수출입증가 현상은 중국 제조업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본산 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대 중국 기계류 수입 증가는 중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본으로 역수출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4) 중국 대 일본 품목별 수입

<표 4-13> 중국 대 일본 수입 품목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HS 85	17,013	HS 85	20,017	HS 85	17,045	HS 85	21,765
2	HS 72	7,946	HS 72	14,207	HS 84	6,854	HS 84	8,696
3	HS 84	6,787	HS 84	7,577	HS 72	4,241	HS 72	6,307
4	HS 27	2,631	HS 27	9,046	HS 73	2,874	HS 73	3,318
5	HS 62	2,247	HS 29	4,135	HS 90	1,727	HS 90	2,885
6	HS 73	2,177	HS 73	3,139	HS 27	1,704	HS 29	1,986
7	HS 76	1,668	HS 62	2,092	HS 29	1,562	HS 27	1,904
8	HS 90	1,482	HS 90	1,932	HS 62	1,499	HS 62	1,853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중국의 대일본 품목별 수입구조는 <표 4-13>를 통해 알 수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류, 전기전자, 기계류이며,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금속제품이다. 특히 일본의 기계류 수출입증가 현상은 중국 제조업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본산 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대 중국 기계류 수입 증가는 중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본으로 역수출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4. 한·중·일 3국 무역구조의 변화

##### 1) 한국의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

한국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총수출은 2001년에 1,504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 와서는 4,664억 달러를 실현하였다. 이는 수출증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제원조달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실시해 나가며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집중투자,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개선 등 수출 기반 확충에 기인한 것이다.<sup>30)</sup> 한국의 수입은 2001년에 1,411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 4,25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4-14>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0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명	금액	국가 명	금액
1	중국	116,837	중국	71,534
2	미국	49,816	일본	64,296
3	일본	28,176	미국	40,403
4	홍콩	25,294	사우디아라비아	26,820
5	싱가포르	15,244	호주	20,456
6	대만	14,830	독일	14,305
7	인도	11,435	인도네시아	13,986
8	베트남	9,652	아랍에미리트 연합	12,170
9	인도네시아	8,897	카타르	11,915
10	브라질	7,753	쿠웨이트	10,850
총계	전 국가	466,384	전 국가	425,212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30) 강정모·원상호, '동북아 국가들의 수출 비교우위분석', 경제학 연구 제49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01, pp.261-267

10대 수출국을 보면, 3대 수출시장의 비중이 높아졌다. 1위인 중국의 비중이 2010년에는 25.1%로 대폭 높아졌으며, 2위 수출국인 미국이고 일본은 3위이다. 주요 수입국 중 1위인 수출국은 중국인데 비중이 2010년에는 16.8%로, 일본, 미국은 각각 15.1%, 9.5%로 2위, 3위 차지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인 반면에 수입국의 분포는 수출국보다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다.

## 2) 중국의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

중국의 교역은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1978년 206억 달러에서 2010년 말 4,74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2년 이후부터는 총액 면에서 한국을 추월하였다. 2010년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768억 달러, 13,755억 달러로 한국의 1,722억 달러 및 1,604억 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이러한 교역 증가가 중국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 중국의 수출의존도는 20%, 수입의존도는 16%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단기적인 전망 또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서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의 품목별, 국별 수출입구조를 살펴보면 <표4-14>에 나타난바와 같다. 먼저 품목별 수출입이 구조를 보면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전기기기, 기계제품, 의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기기, 기계제품, 광물성연료, 플라스틱제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전기기기와 기계제품은 수출입 모두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외에 주요 수출품으로는 의류, 신발, 장난감 등 경공업제품이, 주요 수입품으로는 강재, 화학제품 등 중공업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은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주요 수출국은 미국(2832억 달러), 홍콩, 일본에 이어 한국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일본(1763억 달러), 대만에 이어 한국이 3번째 교역국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의 4번째 수출대상국이며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3번째 수입대상국으로 나타났다.

<표4-15>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미국	283,184	일본	176,304
2	중국홍콩	218,205	한국	138,023
3	일본	120,260	대만	115,645
4	한국	68,811	중국홍콩	106,778
5	독일	68,096	미국	101,310
6	네델란드	49,711	독일	74,378
7	인도	40,879	호주	59,698
8	영국	38,776	말레이시아	50,375
9	싱가폴	32,333	브라질	38,038
10	이탈리아	31,136	태국	33,201
총계	전 국가	1,576,817	전 국가	1,375,451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 3) 일본의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

일본의 최대 수입대상국은 여전히 미국이다. 고도경제성장을 유지하던 1960년의 총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1.0%로 높았으나 점점 그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총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이다.<sup>31)</sup> 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율은 1970년에 14.2% 있던 것이 2001년에는 43.1%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0년까지 49.2%까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제품수입비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번의 오일쇼크를 경험한 1970년대에 20%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제품수입의 지역별구성과 수입제품의 내부구성이 변화를 보이고 있

31) 김영식·위정범, '동북아시아의 역내 무역구조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6호, 대한경영학회, 2010, pp.359~366

다.<sup>32)</sup> 변화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우선, 최대 수입 지역이었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율이 1970년 40.8%에서 2001년에는 21.3%, 2010년에는 14.2%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지역 국가로부터의 제품수입 비율은 같은 기간 8.0%에서 50.0%, 58.9%로 신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표4-16> 일본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0년)

(단위: 백만 엔)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중국	13,086,732	중국	13,408,719
2	미국	10,385,254	미국	5,907,634
3	한국	5,460,872	오스트레일리아	3,912,669
4	대만	4,599,577	사우디아라비아	3,149,350
5	홍콩	3,704,57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2,568,436
6	태국	2,993,712	한국	2,502,311
7	싱가폴	2,209,298	인도네시아	2,463,121
8	독일	1,787,720	대만	2,023,161
9	말레이시아	1,544,640	말레이시아	1,986,217
10	네델란드	1,544,640	카타르	1,903,623
총계	전 국가	67,405,366	전 국가	60,639,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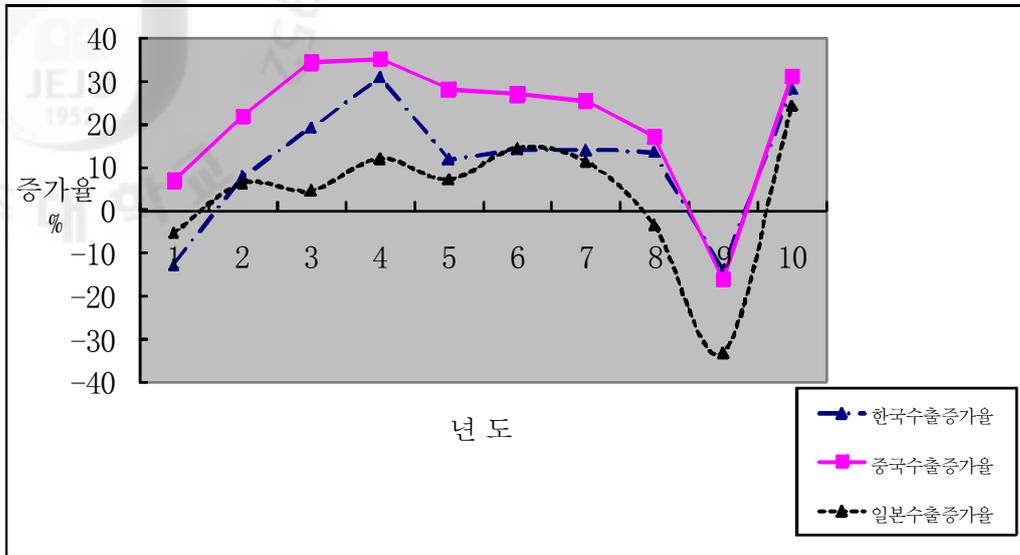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 4) 한·중·일 수출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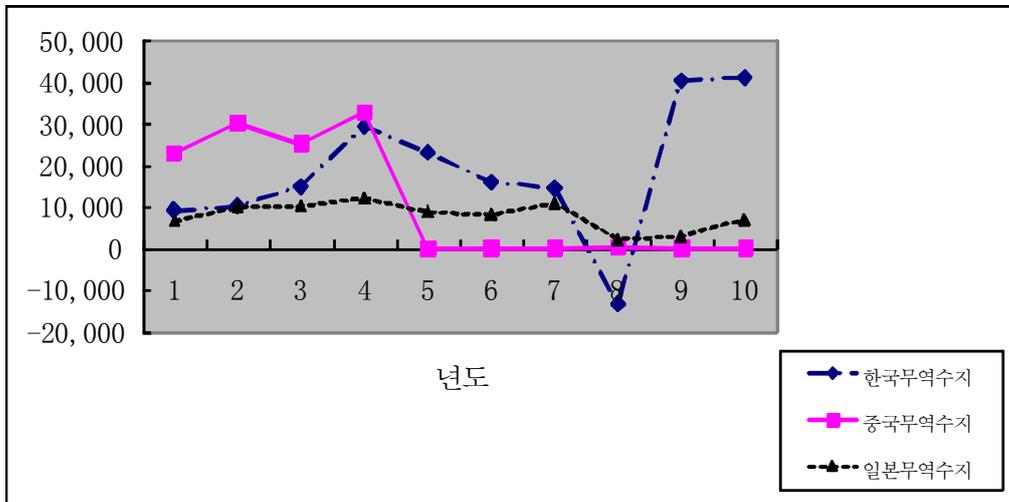
<그림 1>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의 수출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중국과 일본 3국의 수출증가율은 금융위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010년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32) 김진용·노원중,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과제', 서울 한국은행 조사국, 2008, p. 79

<그림 1> 한·중·일 수출증가율 추이 비교



<그림 2> 한·중·일 무역수지 추이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그림 2>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수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한국은 대 중국 수출비중이 25.0%

로 1위이며, 대 미국 수출비중 10.7%로 2위, 대 일본 수출비중 6.0%로 3위이다. 2003년부터 한국의 제1수출시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 이후 한국수출의 중국시장 비중과 미국시장 비중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시장비중도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sup>33)</sup> 한국의 중국, 일본 양국에 대한 역내 수출의존도는 31.0%로 높은 수준이다.

<표 4-17> 한·중·일의 5대 수출국 비중 비교(2010년)

한국		중국		일본	
국별	비중	국별	비중	국별	비중
중국	25.0	미국	18.0	중국	19.4
미국	10.7	홍콩	13.8	미국	15.4
일본	6.0	일본	7.6	한국	8.1
홍콩	5.4	한국	4.4	대만	6.8
싱가폴	3.3	독일	4.3	홍콩	5.5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011. <http://www.kita.net/>

중국은 대 미국 수출비중이 18.0%로 1위이며, 대 홍콩 수출비중 13.8%로 2위, 대 일본 수출비중 7.8%로 3위, 대 한국 수출비중 4.4%로 4위이다. 중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비교하여 볼 때 미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한국, 일본 양국에 대한 역내 수출의존도는 12.0%로 한국의 그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대 중국 수출비중이 19.4%로 1위이며, 대 미국 수출비중 15.4%로 2위, 대 한국 수출비중 8.1%로 3위이다. 일본의 제1수출시장은 2009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 양국에 대한 역내 수출의존도는 27.5%로 한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33) 오명묵, 한·중 농산물의 일본시장에서 경쟁력 분석,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27

## V. 한·중·일 3국간 무역경쟁력 비교 분석

최근 한·중·일 3국간은 무역, 투자, 기술협력 등 여러 분야에 있어 경쟁관계인 동시에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최대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시장에 대한 무역 및 투자 확대의 기회를 기질 수 있으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가재의 경우 수입비중을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원가의 절감이 가능하다.<sup>34)</sup> 한·중·일 3국간 경쟁관계가 심화될수록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제휴와 기술이전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상호 투자의 확대는 동북아 지역을 하나의 생산 네트워크로 만들고 있고 역내국간 상호의존도 증대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동북아 경쟁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경제 환경으로 볼 수 있다.<sup>35)</sup> 특히 한·중·일 3국의 주요 산업은 세계경제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내 무역을 확대하여 부품 및 소재를 상호 공급함으로써 대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한중일 3국간의 산업별 경쟁력을 관찰함으로써, 3국간 상호 경쟁 및 의존관계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 1. 한·중·일의 RCA지수 비교 분석

#### 1) 현시비교우위지수

34) 신광하·유병찬, '한국제조업부문의 비교우위변화와 산업내 무역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04, pp. 387-399

35) 박제진,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구조의 동태적 특징에 관한 실증분석',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9, p.45

비교우위의 존재 여부는 무역특화도 뿐만 아니라 무역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물론 한 나라의 어떤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는 환율, 임금, 가격 및 요소투입비율 등 거시주요변수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동태적 개념이다.<sup>36)</sup> 본 연구에서는 무역경쟁력의 지표로써 세계 주요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현시 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사용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각국의 무역 비교우위를 측정하기 위해 발라사(B. Balassa)가 고안한 것으로 상품의 무역유형이 비교생산비의 차이뿐만 아니라 비가격 요인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산품에 대한 각국의 무역실적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sup>37)38)</sup>

$$RCA_{ik} = \frac{(X_{ik}/TX_k)}{(X_i/TX)} = \frac{(X_{ik}/X_i)}{(TX_k/TX)} \quad (1)$$

$X_{ik}$ : i 국의 k 품목수출액

$TX_k$ : 세계 전체의 k 품목 수출액

$X_i$ : i 국의 총수출액

$TX$ : 세계전체의 수출액

식 (1)은 자국 총수출에 대한 특정 상품의 수출비중 및 세계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한 국가의 품목별 무역경쟁력을 보여 준다.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 1보다 작으면 비교열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수출만 고려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36) 황윤진, '주요 교역상대국간 한국 산업의 동태적 비교우위 측정: 한국산업의 유형별 산업내 무역지수와 무역특화지수 분석 연계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12권 제1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6, p.376

37) Balassa, B. ,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1965, p.99

38) Balassa, B. & L. Bauwens, North Holland, Changing Trade Patterns in Manufactured Goods: An Econometric Investigation, 1988

RCA지수는 각 국가의 비교우위(및 비교열위)를 나타내지만 지수의 분산범위 정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국과 선진중위권에 있는 국가는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함에 따라 RCA지수들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을 것이다.<sup>39)</sup> 왜냐하면 대국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갖고 있고, 거의 모든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국내시장이 넓으며, 선진 중위권 국가들은 선진상위권 국가에 기술적으로 더 정교한 제품을 수출하고 선진 하위권 국가에는 덜 정교한 제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B. Balassa(1965)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이를 확인하고 있다.

현시비교우위(RCA)가 무역정책 및 구조조정 문제의 분석에 다양하게 사용된 이유는 RCA개념이 지수형태로 용이하게 계량화될 수 있고, 이 지수가 가격요인 뿐만 아니라 비가격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가격요인으로 비교우위를 분석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자료를 사용하므로 수입자료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보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sup>40)</sup>

한편 RCA지수의 단점으로는 이 지수가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되지 않아서 국제적 비교분석에 큰 제한점을 가지며, 수출보조금이나 수출쿼터와 같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과 같이 자유무역에 대한 많은 제한이 있는 상품들은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표준화된 상품이나 비내구성 소비재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RCA지수를 경제 분석에 사용할 때 관련된 난점은 상이한 산업에서 각 국가의 RCA지수 수치의 분포에 대한 것이다. 한 특정산업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RCA지수들이 100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산업에 비교우위가 가장 큰 국가 능 상대적으로 낮은 RCA지수를 갖는 반면 제2의 특정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몇 개 국가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가장 큰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의 RCA지수가 아주 높을 수 있다. 따라서 RCA지수의 분포가 산업에 걸쳐 상이할 경우 RCA지수는 한 국가의 비교우위의 순위를 나타내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의 RCA지수의 추세에 중점

39) 김동우, 한·중·일·미 무역경쟁력 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32

40) 이홍식·왕유중,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경제 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pp.155-167.

을 두어 분석하였다.

## 2) 실증분석

### (1) 한국의 품목별 무역경쟁력

<표 5-1>은 한국 연도별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RCA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있어 2010년 강한 무역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선박과 수상구조물(HS 89),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HS 87),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HS 90),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 39), 철강(HS 72), 유기화학품(HS 29), 철강의 제품(HS 73)등이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무역경쟁력이 증가한 품목은 선박과 수상 구조물(HS 89),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HS 90),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 39), 철강(HS 72), 철강의 제품(HS 73)있으며, 경쟁력을 상실한 품목으로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 관물 및 시멘트(HS 27)이었다.

그리고 무역경쟁력이 감소 추세에 있는 품목으로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HS 87), 유기화학품(HS 29) 등이었다. 즉 무역경쟁력이 증가하는 품목은 몇 개 품목이있으며, 무역경쟁력이 감소하는 품목은 몇 개 품목, 경쟁력이 없는 품목을 몇 개로 나타났다.

<표 5-1> 한국 연도별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RCA지수 (2005년~2010년)

순위	HS	05년	HS	06년	HS	07년	HS	08년	HS	09년	HS	10년
1	85	2.17	85	2.01	85	2.03	85	1.94	85	1.85	85	1.97
2	84	1.03	87	1.47	87	1.47	87	1.45	89	28.06	87	1.44
3	87	1.43	84	1.02	84	0.92	84	0.91	84	0.87	84	0.87
4	89	19.57	89	22.52	89	25.12	89	30.56	87	1.38	89	24.6
5	27	0.37	27	0.40	27	0.43	27	0.47	90	2.03	90	0.48
6	39	1.59	90	1.66	90	2.07	90	2.22	27	0.42	27	2.13
7	72	1.65	39	1.51	39	1.50	72	1.57	39	1.56	39	1.52
8	90	1.21	72	1.54	72	1.42	39	1.59	72	1.96	72	1.61
9	29	1.22	29	1.34	29	1.37	29	1.35	29	1.19	29	1.32
10	73	1.04	73	1.17	73	1.12	73	1.23	73	1.36	73	1.26

자료: <http://comtrade.un.org/>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함.

주: HS: HS 2단위 무역품목 분류표 code.

## (2) 중국의 품목별 무역경쟁력

<표 5-2>은 중국이 연도별 상위 10대 수출 품목의 RCA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 있어 2010년 무역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HS 61), 의류와 그 부속품(HS 62),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립식 건물(HS 94), 철강의 제품(HS 73), 선박과 수상구조물(HS 89),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HS 64) 등이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무역경쟁력이 증가한 품목으로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HS 61),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HS 94), 철강의 제품(HS 73), 선박과 수상구조물(HS 89)이었고, 무역경쟁력을 상실한 품목은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HS 90),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HS 87)이었다.

또한 무역경쟁력이 감소 추세에 있는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HS 64)등이었다. 중국의 경우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경쟁력이 증가하는 품목은 몇 개 품목이 있으며,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몇 개 품목, 경쟁력이 감소하는 품목은 몇 개 품목으로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몇 개 품목의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다.

<표 5-2> 중국 연도별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RCA지수 (2005년~2010년)

순위	HS	05년	HS	06년	HS	07년	HS	08년	HS	09년	HS	10년
1	85	1.73	85	1.79	85	1.91	85	1.99	85	1.89	85	1.90
2	84	1.49	84	1.51	84	1.48	84	1.59	84	1.63	87	1.61
3	62	2.82	61	3.49	61	3.90	61	3.49	61	3.03	84	3.42
4	61	2.93	62	2.96	62	2.74	72	1.05	62	2.53	89	2.06
5	90	0.96	90	0.98	72	0.93	62	2.81	94	2.40	90	2.20
6	94	2.02	94	2.08	90	0.97	90	1.94	90	0.93	27	0.84
7	95	3.00	73	1.80	73	1.79	73	1.00	73	1.73	39	1.27
8	64	3.22	72	0.73	94	2.12	94	2.37	89	5.66	72	2.75
9	73	1.68	95	2.95	87	0.29	87	0.35	64	2.92	29	1.89
10	39	0.74	87	0.26	95	2.54	95	2.71	87	0.32	73	0.65

자료: <http://comtrade.un.org/>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함.

주: HS: HS 2단위 무역품목 분류표 code.

### (3) 일본 품목별 무역경쟁력

<표 5-3> 일본 연도별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RCA지수 (2005년~2010년)

순위	HS	05년	HS	06년	HS	07년	HS	08년	HS	09년	HS	10년
1	87	2.38	87	2.58	89	2.62	87	2.93	85	1.48	85	2.12
2	85	1.65	85	1.58	84	1.62	84	1.71	87	2.58	87	1.87
3	84	1.59	84	1.60	85	1.54	85	1.55	84	1.55	84	1.54
4	90	1.83	90	1.67	90	1.53	72	1.63	90	1.50	89	1.53
5	72	1.57	72	1.51	72	1.42	90	1.51	72	2.40	90	1.58
6	29	1.03	39	1.02	39	1.02	39	1.06	89	9.69	27	1.21
7	39	0.97	29	1.03	29	1.03	29	0.98	39	1.23	39	1.04
8	89	6.70	89	7.74	89	8.01	89	8.37	29	1.14	72	4.83
9	73	1.11	73	1.16	73	1.06	27	0.13	73	1.19	29	1.04
10	40	1.52	38	1.80	38	1.85	73	1.06	27	0.12	73	1.12

자료: <http://comtrade.un.org/>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함.

주: HS: HS 2단위 무역품목 분류표 code.

<표5-3>은 일본의 연도별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RCA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2010년 무역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과 부속품(HS 87),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HS 90), 철강(HS 72), 선박과 수상구조물(HS 89),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 39), 유기화학품(HS 29), 철강의 제품(HS 73)등이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무역경쟁력이 증가한 품목으로는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HS 84), 철강(HS 72), 선박과 수상구조물(HS 89),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 39), 유기화학품(HS 29), 철강의 제품(HS 73)이었고, 무역경쟁력을 상실한 품목은 관품 및

시멘트(HS 27)이었다.

그리고 무역경쟁력이 감소 추세에 있는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HS 90)등이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경쟁력이 증가하는 품목은 몇 개 품목이며,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몇 개 품목, 경쟁력이 감소하는 품목은 몇 개 품목으로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몇 개 품목의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다.

## 2. 한·중·일 3국의 TSI지수 비교 분석

### 1) 무역특화지수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무역특화지수가 자주 사용된다.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또는 경쟁력지수(Competitiveness Index: CI)는 수출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 품목의 순수출을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의 합)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sup>41)</sup>

$$TSI = \frac{X - M}{X + M}$$

여기서 X와 M은 각각 전체 수출액 및 수입액이다.

이는 국가 간 교역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체를 바탕으로 하며, 순수출이 교역규모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교역규모로 나누어 구하게 된다. 무역특화지수는 -1과 1사이의 값을 갖는

41) 권택호·주경원, '한국과 동아시아국가간 무역구조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215-221

데 무역특화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를 의미한다.<sup>42)</sup> 0에서 -1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며, 0에서 1로 갈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sup>43)</sup>

## 2) 한·중·일 3국의 대 세계 수출입 비교

<표 5-4> 한·중·일 대 세계 수출입규모 비교

(단위: 억 달러, %)

		수출				수입			
		세계	한국	중국	일본	세계	한국	중국	일본
2005	금액	99,263	2,844	7,620	5,949	100,556	2,612	6,600	5,159
	비중	100	2.9	7.7	6.0	100	2.6	6.6	5.1
2006	금액	115,882	3,255	9,689	6,467	116,802	3,094	7,915	5,791
	비중	100	2.8	8.4	5.6	100	2.6	6.8	5.0
2007	금액	132,176	3,715	12,200	7,143	134,225	3,568	9,561	6,222
	비중	100	2.8	9.2	5.4	100	2.7	7.1	4.6
2008	금액	139,108	4,220	14,307	7,814	155,545	4,353	11,326	7,625
	비중	100	3.0	10.3	5.6	100	2.8	7.3	4.9
2009	금액	123,639	3,635	12,016	5,807	127,350	3,231	10,056	5,520
	비중	100	2.9	9.7	4.7	100	2.5	7.9	4.3
2010	금액	150,283	4,711	15,804	7,717	155,262	4,253	13,939	6,940
	비중	100	3.1	10.5	5.1	100	2.7	8.6	4.5

자료: <http://comtrade.un.org>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수출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 3,635억 달러, 중국 1조 20,126억 달러, 일본

42) 박재진,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구조의 동태적 특징에 관한 실증분석',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9, p.68

43) Grubel, H. & P. Lloyd, The empirical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 Economic Record, 1971, p.494

5,807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여 중국은 한국의 3.3배 수준이며 일본은 한국의 1.6배 수준이다. 세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중국 세계1위(세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9.7%), 일본 세계 4위(4.7%), 한국 세계 9위(2.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수입(2009년)의 경우 한국 3,231억 달러, 중국 1조 달러, 일본 5,52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여 중국은 한국의 3.1배 수준이며 일본은 한국은 1.7배 수준이다. 세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중국 세계 2위(세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7.9%), 일본 세계 5위(4.3%), 한국 세계 9위(2.5%)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수출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 4,711 억 달러, 중국 1조 5,804억 달러, 일본 7,717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여 세계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10.5%, 일본 5.1%, 한국 3.1%를 각각 기록하였다.

중국 무역은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 수출 1위, 수입 2위로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국가로 존재감을 더욱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 3위권 무역규모를 나타내었던 일본무역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수출은 세계 4위, 수입은 세계 5위로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과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나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3%에 근접하고 있고 세계 수출순위도 9위로 성장함으로써 수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표 5-5>에서 알 수 있듯이, 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업종에서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농림수산업, 섬유류, 비금속제품, 기계류, 수송기기, 기타제조 업종에서 수출특화 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업종에서 수출특화 되어 있으며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수입특화 되어 있으나 중국의 대 세계 수출입액이 거의 동일하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은 3국 모두 수입특화 되어 있어 경쟁력이 약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2005~2010년 일본의 지수는 계속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 한국과 중국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의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교우위(무역경쟁력)를 견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무역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목재 및 펄프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국제경쟁력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본은 수입특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섬유산업은 수출특화 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비금속광물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특화지수는 마이너스로 나타나 국제경쟁력이 약하지만, 중국의 특화지수는 2005~2010년 기간 계속 0.6이상으로 높은 비교우위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금속제품은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여 중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한·중·일의 기계류분야는 모두 플러스를 보이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전기전자 산업, 수송기기는 수출특화 되어 있어 첨예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중국은 한국과 일본처럼 수출이 활발하게 못하지만 지수는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이 완만하게 강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정밀기기는 수입특화 되어 있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4) 이홍배, '한·일 부품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FTA 파급효과 분석',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2005, p.225

45) 전구, 한·중 간 업종별 무역특화 및 산업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52-61.

<표 5-5>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무역특화지수

년도	농림수 산	광업	화학공 업제품	플라스 틱고무 제품	목재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 제품	철강금 속제품	기계류	전기전 자	수송기 기	정밀기 기	
한 국	05	-0.566	-0.642	-0.167	0.382	-0.309	0.328	-0.305	-0.109	0.159	0.246	0.780	-0.038
	06	-0.605	-0.635	-0.129	0.354	-0.356	0.239	-0.317	-0.087	0.135	0.238	0.757	0.134
	07	-0.633	-0.619	-0.122	0.361	-0.395	0.200	-0.410	-0.140	0.110	0.233	0.744	0.326
	08	-0.648	-0.597	-0.125	0.384	-0.374	0.201	-0.348	-0.177	0.044	0.288	0.756	0.376
	09	-0.637	-0.473	-0.128	0.832	-0.678	0.220	-0.635	-0.144	0.158	0.265	0.767	0.566
	10	-0.643	-0.567	-0.122	0.886	-0.664	0.211	-0.511	-0.128	0.164	0.278	0.784	0.589
중 국	05	0.088	-0.630	-0.227	-0.065	-0.138	0.642	0.687	0.004	0.217	-0.007	0.178	-0.286
	06	0.122	-0.705	-0.196	-0.077	-0.045	0.686	0.678	0.176	0.262	0.019	0.128	-0.256
	07	0.033	-0.746	-0.146	-0.076	-0.046	0.735	0.660	0.196	0.327	0.048	0.222	-0.272
	08	-0.130	-0.754	-0.055	-0.061	-0.077	0.756	0.664	0.288	0.342	0.101	0.279	-0.252
	09	-0.181	-0.784	-0.101	-0.054	-0.045	0.762	0.662	0.212	0.514	0.089	0.281	-0.250
	10	-0.187	-0.635	-0.093	-0.047	-0.038	0.775	0.675	0.209	0.563	0.101	0.294	-0.247
일 본	05	-0.893	-0.935	0.116	0.222	-0.623	-0.546	-0.277	0.280	0.392	0.331	0.761	0.252
	06	-0.883	-0.932	0.117	0.216	-0.633	-0.565	-0.221	0.261	0.394	0.308	0.779	0.180
	07	-0.847	-0.905	0.114	0.243	-0.595	-0.553	-0.187	0.224	0.425	0.296	0.783	0.181
	08	-0.883	-0.876	0.409	0.213	-0.542	-0.568	-0.150	0.270	0.434	0.284	0.793	0.190
	09	-0.878	-0.883	0.318	0.249	-0.599	-0.571	-0.147	0.264	0.464	0.432	0.799	0.184
	10	-0.893	-0.894	0.312	0.257	-0.535	-0.531	-0.143	0.283	0.466	0.511	0.824	0.197

자료: <http://comtrade.un.org/>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함.

한·중·일 3국은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 기기에서 동일하게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다. 그 만큼 한·중·일 3국은 동 산업에서 동일하게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술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3국 간 경쟁 또한 더 심화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전기전자, 정밀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섬유류, 비금속제품, 철강금속제품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며 경쟁력이 더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이들 3국간의 기술력 격차는 축소되고 있어, 향후 중국산업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3) 미국 시장에서의 한·중·일 3국의 품목별 무역경쟁력 비교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되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은 광업,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업종에서 수출 특화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광업,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광물,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기타 업종에서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이고 수출 특화되어 있다.

일본은 미국시장에서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기타제조업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미국시장에서 한·중·일의 농림수산업 무역특화지수는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10년에 각각  $-0.752$ ,  $-0.904$ 로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의 광업은 미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건지하면서 수출 특화되어 왔으나 일본은 2010년  $-0.289$ 으로 하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화학공업제품은 미국시장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수입특화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은 전체적

으로 비교열위에 놓여 있는 반면,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모두 수출 특화되어 있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목재 및 펄프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미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반면, 중국의 무역특화지수는 6년간 계속 플러스를 보이면서 한일 양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섬유류는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높은 경쟁력을 보이면서 수출 특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비교열위의 정도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중국의 비금속제품은 미국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가 6년간 계속 0.8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나타냈다.

그리고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등 산업은 한중일 모두 미국시장에서 미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sup>46)</sup>. 동 산업에서 한국의 기계류, 전기전자는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다. 중국은 철강금속제품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지만, 수송기기는 아직 한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밀기기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특화지수는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즉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다. 기타제조업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약하고, 중국과 일본은 비교우위를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쟁력이 일본보다 더 높게 관찰되었다.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무역특화지수 수준을 보석해 보면,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지수는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고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다. 일본도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지수가 낮아져 경쟁력이 낮아졌으나, 중국은 평균적으로 계속 0.3이상 유지하고 수출 특화되어 왔으며, 무역흑자를 기록해 경쟁력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 압도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시장에서 수송기기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지만,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광물, 기계류,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등에서는 경쟁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대 미국시장의 무역특화지수는 농림수산업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에서 플러스를 보이면서 수출 특화되어

46) 박재진,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구조의 동태적 특징에 관한 실증분석',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9, pp.405-432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수입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대미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크게 나타내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표 5-6>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무역특화지수

년도	농 립 수산	광업	화 학 공 업 제품	플 라 스틱 고 무 제품	목 재 및 펄 프	섬 유 류	비 금 속 품	철 강 속 제품	기 계 류	전 기 전자	수 송 기기	정 밀 기기	
한국	05	-0.712	0.362	-0.594	0.155	-0.239	0.695	-0.220	0.179	0.081	0.159	0.733	-0.518
	06	-0.762	0.430	-0.529	0.097	-0.162	0.707	-0.301	0.268	0.090	0.107	0.602	-0.444
	07	-0.799	0.467	-0.564	0.091	-0.276	0.644	-0.124	0.002	0.051	0.198	0.574	-0.227
	08	-0.874	0.128	-0.474	0.124	-0.374	0.578	-0.195	0.027	0.094	0.341	0.650	-0.284
	09	-0.774	0.322	-0.442	0.121	-0.301	0.617	-0.124	0.025	0.085	0.424	0.674	-0.213
	10	-0.752	0.485	-0.418	0.132	-0.212	0.636	-0.117	0.121	0.104	0.478	0.683	-0.209
중국	05	-0.231	0.240	-0.105	0.420	0.110	0.728	0.925	0.553	0.627	0.622	0.217	0.056
	06	-0.076	0.396	-0.088	0.424	0.193	0.738	0.902	0.651	0.654	0.596	0.045	0.137
	07	-0.196	0.026	-0.102	0.349	0.111	0.809	0.899	0.596	0.681	0.606	0.089	0.043
	08	-0.396	0.185	0.008	0.333	0.017	0.799	0.883	0.603	0.664	0.585	0.169	0.055
	09	-0.154	0.321	0.002	0.356	0.118	0.803	0.899	0.609	0.656	0.603	0.172	0.058
	10	-0.136	0.532	-0.012	0.437	0.132	0.829	0.903	0.612	0.682	0.658	0.178	0.062
일본	05	-0.926	-0.436	-0.044	0.298	-0.553	-0.066	-0.224	0.430	0.478	0.462	0.800	0.037
	06	-0.920	-0.209	-0.086	0.283	-0.573	-0.015	-0.226	0.392	0.457	0.398	0.824	-0.011
	07	-0.922	-0.040	-0.119	0.259	-0.567	0.129	-0.236	0.294	0.453	0.386	0.808	-0.025
	08	-0.932	-0.601	-0.150	0.232	-0.577	0.101	-0.297	0.302	0.476	0.408	0.777	-0.010
	09	-0.917	-0.137	-0.121	0.299	-0.552	0.137	-0.265	0.279	0.487	0.421	0.811	-0.020
	10	-0.904	-0.289	-0.106	0.322	-0.548	0.139	-0.213	0.286	0.495	0.446	0.820	-0.016

자료: <http://comtrade.un.org/>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함.

한편 미국시장에서 한·일 양국은 무역특화지수 수준이 유사하게 관찰되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의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등에서 모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나 동일 산업은 미국시장에서 3국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가 대 미국 지수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중국과 일본의 대미시장에서의 지수는 대 세계 지수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수입시장에서 한국에 비해 중국, 일본과 교역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교역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아울러 미국의 대일, 대중 수입의존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3. 한·중·일간 분석 결과

#### 1) 한·중 경쟁력 비교

##### (1) 한국의 대 중국 경쟁력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광업,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업종에서 지수가 플러스로 나타나 수출특화 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업,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광물, 철강금속제품, 기타제조업 등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의 대 중국 농림수산업은 2005~2010년 사이에 경쟁력이 약간 강화되었으나 지수가 계속  $-0.7$ 이하로 유지되면서 수입특화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업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비교우위(무역경쟁력)를 견지하고 있다. 대 중국 화학공업제품은 수출특화 되어 왔으나 경쟁력은 약간 약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계속  $0.5$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수출특화 되어 있어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한국의 대 중국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광물, 철강금속제품 등은 유사하

계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금속광물은 2010년까지 -0.643로 낮아서 수입특화정도가 크다는 파악되었다.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등은 플러스로 되어 있으며,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특히 기계류, 수송기기 산업은 흑자기조 수평분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밀기기는 수출특화정도가 높으며 4년 간 경쟁력이 약간 강화되는 추세이다.

## (2) 중국의 대 한국 경쟁력

<표 5-7> 한국과 중국의 무역특화지수

년도	농 립 수산	광업	화 학 공 업 제품	플 라 스틱 고 무 제품	목 재 및 펄 프	섬 유 류	비 금 속 제 품	철 강 금 속 제품	기 계 류	전 기 전자	수 송 기기	정 밀 기기	
한 국 의 대 중 국	05	-0.790	0.058	0.536	0.672	-0.125	-0.118	-0.468	-0.046	0.345	0.271	0.750	0.693
	06	-0.786	0.304	0.513	0.596	-0.366	-0.245	-0.526	-0.157	0.285	0.178	0.704	0.666
	07	-0.779	0.253	0.492	0.568	-0.407	-0.321	-0.599	-0.325	0.139	0.209	0.514	0.709
	08	-0.712	0.299	0.417	0.593	-0.318	-0.325	-0.633	-0.457	-0.093	-0.139	0.378	0.708
	09	-0.709	0.423	0.523	0.631	-0.402	-0.454	-0.626	-0.421	-0.077	0.146	0.685	0.709
	10	-0.701	0.482	0.516	0.598	-0.387	-0.351	-0.643	-0.385	-0.064	0.222	0.723	0.713
중 국 의 대 한 국	05	0.839	-0.108	-0.585	-0.744	-0.060	0.170	0.477	-0.065	-0.359	-0.515	-0.444	-0.859
	06	0.851	-0.355	-0.547	-0.702	0.186	0.308	0.537	0.105	-0.371	-0.496	-0.374	-0.823
	07	0.843	-0.349	-0.515	-0.697	0.245	0.344	0.584	0.228	-0.334	-0.455	-0.151	-0.817
	08	0.808	-0.410	-0.458	-0.720	0.185	0.366	0.607	0.384	-0.115	-0.344	-0.046	-0.794
	09	0.818	-0.404	-0.442	-0.701	0.117	0.875	0.671	0.293	-0.108	-0.323	-0.033	-0.756
	10	0.825	-0.336	-0.424	-0.686	0.215	0.863	0.683	0.337	-0.102	-0.312	-0.026	-0.731

자료: <http://comtrade.un.org/>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함.

<표5-7>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대 한국 무역특화지수는 농림수산업,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광물, 철강금속제품 지수가 플러스로 유지하여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업,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에서는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수입특화 되어 있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농림수산업은 수출특화정도가 높으나 6년 간 경쟁력이 약간 약화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광업의 지수는 낮아져 수입특화 되어 있다. 화학공업제품은 수입특화정도가 높으나 6년 간 경쟁력이 약간 강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 한국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지수는 계속  $-0.6$ 이하로 유지되면서 대 한국의 수출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어 수입의존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목재 및 펄프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약간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섬유류, 비금속제품, 철강금속제품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높아 수출특화 되어 있고 6년간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 한국 비금속제품은 2005년 0.477에서 2010년 0.683로 높아져, 수출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 한국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 계속 마이너스로 나타나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으나, 경쟁력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 한국의 전기전자, 정밀기기의 지수는 아직  $-0.312$ ,  $-0.731$ 로 수입특화형 수직분업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광업,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이다. 반면에 농림수산업,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제품, 철강금속제품은 한국에 비해 중국의 경쟁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우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한·일 경쟁력 비교

### (1) 한국의 대 일본 경쟁력

한국의 대 일본 무역특화지수는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업, 광업, 섬유류에서 플러스를 보이면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특화되어 있다. 반면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비금속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은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농림수산업, 광업은 수출특화되어 있으나, 6년 간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대 일본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2010년까지  $-0.648$ ,  $-0.467$ 로 수입특화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6년 간 계속 약화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목재 및 펄프는 2006년부터 무역흑자가 적자로 전환되며 대 일본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섬유류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흑자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 일본 비금속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등은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고 대 일본 수입의존도가 크게 나타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약하다. 그리고 6년 간 경쟁력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 일본 전기전자는 2005~2007년 사이에 비교우위가 높아졌다가 2008년에는 약화되어  $-0.242$ 로 하락하였다. 그런데 2010년에 다시 회복되며  $-0.201$ 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수송기기는 2008년  $-0.670$ 로 대 일본 수입의존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밀기기는 수입특화되어 있으나 2005년  $-0.413$ 에서 2010년  $-0.257$ 로 높아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 (2) 일본의 대 한국 경쟁력

한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비금속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은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광업, 섬유류에서는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대 한국 농림수산업, 광업은 2010년까지  $-0.406$ ,

-0.418로 수입특화 되어 수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년 간 경쟁력은 약간 강화되는 추세이다. 화학공업제품은 6년 간 큰 변화 없이 경쟁력이 계속 매우 높으며 대 한국 수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6년 간 계속 0.4이상을 유지하며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재 및 펄프는 2006년부터 무역흑자로 전환되고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강화되며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일본의 대 한국 섬유류는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며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속제품, 철강금속제품은 6년 간 큰 변화 없이 지수가 각각 0.3, 0.4이상을 유지하며 수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기계류는 수출특화정도가 높고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일본의 전기전자산업은 한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2005년 0.218에서 2010년에 0.113로 대 한국 경쟁력이 약화 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수송기기는 6년 간 계속 0.5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특화정도와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대 한국의 정밀기기는 수출특화정도가 높으나, 2005년 0.559에서 2010년 0.473로 낮아져 약화되는 추세이다.

종합해 보면 한국의 농림수산업, 공업, 섬유류 산업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반면,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비금속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에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나타냈다.

한국의 대 일본 무역특화지수와 한국의 대 중국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해 보면, 광업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 모두 경쟁력이 있으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이 대 중국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대 일본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수산업, 섬유류 등은 대 일본 수출특화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산업은 대 중국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8> 한국과 일본의 무역특화지수

년도	농림수산물	광업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한국의 대일본	05	0.599	0.647	-0.650	-0.409	0.048	0.264	-0.415	-0.396	-0.500	-0.361	-0.591	-0.431
	06	0.506	0.571	-0.663	-0.428	-0.115	0.214	-0.413	-0.457	-0.547	-0.298	-0.555	-0.139
	07	0.402	0.511	-0.697	-0.465	-0.239	0.170	-0.459	-0.451	-0.584	-0.207	-0.666	-0.249
	08	0.476	0.423	-0.606	-0.395	-0.313	0.159	-0.396	-0.458	-0.566	-0.242	-0.670	-0.416
	09	0.525	0.454	-0.621	-0.425	-0.365	0.151	-0.461	-0.444	-0.541	-0.223	-0.531	-0.328
	10	0.546	0.421	-0.648	-0.467	-0.380	0.132	-0.472	-0.453	-0.550	-0.201	-0.525	-0.257
일본의 대한국	05	-0.614	-0.615	0.667	0.419	-0.059	-0.264	0.472	0.398	0.430	0.218	0.582	0.559
	06	-0.511	-0.528	0.666	0.467	0.122	-0.209	0.440	0.433	0.493	0.127	0.585	0.157
	07	-0.421	-0.400	0.706	0.492	0.255	-0.125	0.443	0.416	0.511	0.067	0.620	0.299
	08	-0.504	-0.363	0.625	0.436	0.326	-0.134	0.368	0.453	0.530	0.084	0.595	0.525
	09	-0.421	-0.504	0.664	0.488	0.202	-0.152	0.695	0.497	0.637	0.095	0.597	0.505
	10	-0.406	-0.418	0.693	0.512	0.258	-0.145	0.723	0.551	0.682	0.113	0.621	0.473

자료: <http://comtrade.un.org/>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함.

### 3) 중·일 경쟁력 비교

#### (1) 중국의 대 일본 경쟁력

중국의 대 일본 교역에서 농림수산업, 광업,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제품 등은 플러스를 보이면서 수출특화 되어 있다. 그러나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에서는 수입특화 되어 있으며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농림수산업은 6년 간 0.9이상으로 일본에 비해 압

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 일본 광업 역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5년 0.408에서 2010년 0.141로 낮아져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화학공업제품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수출이 활발하지 못하고 중국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낮으나 경쟁력은 약간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중국의 대 일본 목재 및 펄프산업은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강하지만 지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섬유류는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대 일본 비금속광물도 무역흑자로 나타났지만 2005~2008년 사이에 경쟁력이 약간 약화되고 있다.

일본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철강금속제품과 기계류는 2010년에 걸쳐 각각 -0.538, -0.157로 수입특화 되어 일본에 비해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나, 약간 강화되는 추세이다. 전기전자, 수송기기도 지수는 계속 -0.3이하로 나타나 수입특화 되어 있다. 2005~2010년 사이에 계속 무역적자를 보이면서 약화되는 상태이다. 또한 중국의 대 일본 정밀기기는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2010년에는 -0.516로 낮아져 수입특화정도가 심화되었다.

## (2) 일본의 대 중국 경쟁력

<표 5-9>에서 나타내듯이, 일본의 대 중국 무역특화지수는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에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농림수산업, 공업,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제품, 기계류에서는 무역적자를 나타나며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대 중국 농림수산업은 -0.9이하로 수입특화정도가 크게 나타나, 대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업도 수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쟁력은 2005년 -0.497에서 2010년 -0.017로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화학공업제품은 2005년 0.307에서 2010년 0.243로 낮아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수출과 수입 거의 동일하며,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목재 및 펄프는 중국에 비해 경쟁력은 약하지만 5년 간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일본의 대 중국 섬유류는 2010년  $-0.712$ 로 수출이 활발하지 못하고, 무역적자를 크게 나타냈다. 대중 수입특화정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비금속광물은 6년간 계속  $-0.5$ 이하로 되며 대 중국 수입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철강금속은 2005~2010년 사이에 큰 변화 없이 무역흑자를 나타내며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류는 2005년부터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무역적자로 전화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전기전자는 6년 간 큰 변화 없이 2005년  $0.015$ 에서 2010년  $0.069$ 로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약간 강하다. 또한 중국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수송기기는 2010년  $0.558$ 로 수출특화 되어 왔으며,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 중국 정밀기기는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강하고 2005년  $0.191$ 에서 2010년  $0.208$ 로 높아져 경쟁력이 약간 강화되는 추세이다.

종합해 보면, 중국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농림수산업, 광업,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광물, 기타제조업이다. 반면에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업종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면서 비교우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 한국 무역특화지수와 중국의 대 일본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해 보면, 농림수산업,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제품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철강금속제품은 한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에서는 한국과 일본 수입시장에서 모두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 한국 무역특화지수와 일본의 대 중국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해 보면, 모두 수출특화 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농림수산업, 광업, 섬유류 등은 모두 수입특화되어 있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보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비금속제품 등이다.

<표 5-9> 중국과 일본의 무역특화지수

년도	농림수산물	광업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목재및펄프	섬유	비금속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중국의 대일본	05	0.917	0.408	-0.418	-0.329	0.236	0.640	0.390	-0.356	-0.218	-0.355	-0.308	-0.367
	06	0.908	0.280	-0.387	-0.319	0.244	0.671	0.352	-0.369	-0.235	-0.375	-0.354	-0.407
	07	0.913	0.168	-0.375	-0.354	0.179	0.686	0.300	-0.387	-0.180	-0.387	-0.374	-0.518
	08	0.908	0.008	-0.307	-0.349	0.139	0.703	0.322	-0.377	-0.167	-0.338	-0.453	-0.550
	09	0.902	0.132	-0.501	-0.445	0.128	0.680	0.569	-0.585	-0.198	-0.584	-0.631	-0.521
	10	0.911	0.141	-0.422	-0.381	0.107	0.693	0.627	-0.538	-0.157	-0.531	-0.625	-0.516
일본의 대중국	05	-0.913	-0.497	0.307	-0.052	-0.397	-0.712	-0.618	0.219	-0.059	0.015	0.429	0.191
	06	-0.899	-0.411	0.276	-0.020	-0.399	-0.733	-0.595	0.242	-0.045	0.037	0.459	0.176
	07	-0.901	-0.252	0.276	0.012	-0.334	-0.738	-0.614	0.269	-0.041	0.067	0.500	0.180
	08	-0.904	-0.026	0.164	-0.011	-0.272	-0.758	-0.552	0.264	-0.032	0.029	0.519	0.197
	09	-0.921	-0.025	0.253	0.007	-0.225	-0.736	-0.544	0.245	-0.057	0.048	0.525	0.199
	10	-0.916	-0.017	0.243	0.011	-0.213	-0.731	-0.573	0.269	-0.062	0.069	0.558	0.208

자료: <http://comtrade.un.org/>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함.

## VI. 결론

90년대 이후 세계무역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점유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대외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급성장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외수출 규모는 1992년에 한국을 추월한 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3국의 무역구조를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품목별로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중·일의 수출추이는 중국의 증가추세가 가장 크게,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그리고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는 3국간의 교역구조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생산·가공에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나 자본재의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기술적 우위를 기초로 첨단소재나 자본재 및 핵심부품의 수출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한편 한·중·일 간 수출입 현황을 보면, 한·중 및 중·일 간의 수출입 증가율은 한·일 간의 수출입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동안 한국은 중국에 중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는 구조라고 지적되어 왔으나, 본 연구 시점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에,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무역수지 흑자를 구현하는 구조로 무역구조가 변화한 것이 관찰되었다. 이른바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무역수지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축소되고 있는 데 반해 한·중 및 한·일 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크게 해소되지 못한 것이 또 다른 3국간 교역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반대로 대미국 수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한·중·일의 주요 수출상품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10대 수출품목은 안정적인데 비해, 중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첨단,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중·일 3국의 경쟁관계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위 10대 RCA지수들을 활용한 경쟁력구조의 국별 추이를 보면, 한국, 일본의 경쟁력은 안정적인데 비해 중국의 경쟁력구조는 지속적인 변화가 예측된다. RCA지수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3국의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 정밀기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업, 광업, 화학공업제품, 목재 및 펄프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수송기기 산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점유율을 낮지만 섬유류, 비금속광물, 기타 제조업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점유율이 높으며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업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수산업, 광업, 화학공업제품, 목재 및 펄프, 섬유류, 요업토석, 기계류 등에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국은 섬유류, 요업토석,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에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수산업, 광업,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수송기기 업종에서 RCA지수는 1이하로 관찰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RCA지수는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업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림수산업, 광업,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섬유류, 요업토석에서 지수가 1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중·일의 TSI지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전기전자, 정밀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섬유류, 비금속광물, 철강금속제품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며 경쟁력이 더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들 3국간의 기술력 격차는 축소되고 있어,

향후 중국산업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대 세계 TSI지수가 대미 지수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중국과 일본의 대미시장에서의 지수는 대 세계 지수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교역관계가 더 긴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아울러 미국의 대일, 대중 수입의존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2국 간 경쟁력 비교분석 결과, 한국이 대 중국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대 일본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수산업, 섬유류 등은 대 일본 수출특화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산업은 대 중국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대 한국 무역특화지수와 중국의 대 일본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해 보면, 농림수산업, 목재 및 펄프, 섬유류, 비금속광물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철강금속제품은 한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에서는 한국과 일본 수입시장에서 모두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의 대 한국 무역특화지수와 일본의 대 중국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해 보면, 모두 수출특화 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농림수산업, 광업, 섬유류 등은 모두 수입특화 되어 있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보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비금속광물 등이다.

다섯째, 노동집약적 산업인 중국의 섬유류, 비금속광물은 일본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본집약적 산업인 일본의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기, 정밀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직 중국 산업보다 일본산업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류, 비금속광물, 그리고 자본집약적 산업인

철강금속제품은 한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여, 한·중 간 무역은 중·일 간 무역에 비해 기술격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중·일의 무역경쟁력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수출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구조 역시 한국과 일본을 추종하고 있어, 향후 3국의 치열한 경쟁관계가 예견된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 간 경쟁력 수준차이 축소 및 의존관계 심화 등의 변화는 상대국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경제에 있어 일본과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동시에 지역주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세계무역 흐름 속에서 경제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면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전개한 한·중·일 3국 간 산업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상호 의존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3국간 협력관계 방향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국가 간 산업별 경쟁력 수준을 비교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쟁력 지수 측정방법을 도입하여, 최근 6년 간 한·중·일 3국간의 산업별 경쟁력 수준을 일목요연하게 측정하여 관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렇기에 상술한 이들 3국간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한 협력관계 구축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하여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협력구도 확립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강정모·원상호, '동북아 국가들의 수출 비교우위분석', 경제학 연구 제49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01, pp.261-267.
- 권택호·주경원, '한국과 동아시아국가 간 무역구조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215-221.
- 김동우, 한·중·일·미 무역경쟁력 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p.32-64.
- 김영식·위정범, '동북아시아의 역내 무역구조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6호, 대한경영학회, 2010, pp.359~366.
- 김종모, 한·일 간 수산물 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9-43.
- 김지현, 한국과 중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 및 보완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31.
- 김진용·노원중,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2008, p.79.
- 모수원, '중국 가전산업의 수출경쟁력: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하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 박상수·최의현, '한·중 수출경쟁력 분석: 미국 및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20집, 중국학연구회, 2001.
- 박승록, 한·중·일 기업경쟁력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2007, p.69-142.
- 박재진,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구조의 동태적 특징에 관한 실증분석',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9, p.45-68.
- 박정동·김경희, '중국시장에서 인천·부산의 품목별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8권 제2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10.
- 박형래·장유식,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0, pp.231-239.
- 섭여명,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한·중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대 중국 투자한국제조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21.

- 손일태, '한·중·일 및 아세안의 교역구조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FTA 전략', 무역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7, p.269.
- 신광하·유병찬, '한국제조업부문의 비교우위변화와 산업내 무역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04, pp. 387-399.
- 신지현, '한·중 간 무역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신현곤, '한·중·일 철강 수출경쟁력 비교분석과 시사점', POSRI경영연구 제4권 제1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04.
- 오동윤·박상일, '한국의 대일본 무역역조와 양국간 교역품목별 경쟁력 비교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동북아학회, 2011, pp.247-263.
- 오명목, '한·중 농산물의 일본시장에서 경쟁력 분석',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우지효, '한·중·일 수산물 부문에 있어 한국의 경쟁력 수준과 수출전략품목 분석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8.
- 유용상,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윤진은, '한·일 FTA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성아·신경수, '기술 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한·중·일 수출경쟁력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
- 이재득, '중국과 한국의 제품별 산업내무역 비교우위 및 무역수지기여도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7, p.143.
- 이준엽, '한·중·일 산업내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동북아 국제분업체계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0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3, p.102
- 이홍배, '한·일 부품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FTA 파급효과 분석', 국제지역학화 춘계학술대회, 2005, p.225.
- 이홍배, '한·중·일 일반기계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FTA 대응방안', 동북아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6, p.122.
- 이홍배·오동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생산기술격차에 따른 산업 및 무역의존관

- 계변화', 비교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박영사, 2009, p.121-129.
- 이홍식·왕유중,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pp.154-167.
- 장동철, '한국과 중국의 대미시장 수출경쟁력 비교연구', 논문집 제45집 제1호-인문·사회과학편, 경기대학교, 2001.
- 전구, '한·중 간 업종별 무역특화 및 산업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12-61.
- 전주영, '미국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쟁력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전혜연,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인교, '한·일 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자원부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22.
- 최병철,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 사회과학논집 제3집 제2호, 울산대학교, 1993.
- 홍준석, '한·중 간 수출경쟁력 비교우위 분석: 양국 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홍준석, '한·중 간 수출경쟁력 비교우위 분석-양국 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21.
- 황윤진, '주요 교역상대국간 한국 산업의 동태적 비교우위 측정: 한국산업의 유형별 산업내 무역지수와 무역특화지수 분석 연계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12권 제1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6, p.376.
- Balassa, B. ,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1965, p.99
- Balassa, B. & L. Bauwens, North Holland, Changing Trade Patterns in Manufactured Goods: An Econometric Investigation, 1988, p.54
- Chan, S. & C. Kuo, Trilateral trade relations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Challenges and prospect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2005, p.33

Grubel, H. & P. Lloyd, The empirical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  
Economic Record, 1971, p.494

中国统计年鉴, 中國 國家統計局, 2010, pp. 48-53

인터넷 통계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세계은행 홈페이지(<http://www.cepii.fr/>)

아시아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pcj.or.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http://www.koreaexim.go.kr/>)

한국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 (<http://www.stats.gov.cn/>)

<부표1> HS 2단위 기준 품목별 산업 분류

Code	품목
1~24	농림수산물
25~27	광물
28~38	화학물, 화학 공업 제품
39~40	플라스틱, 고무 제품
41~43	가죽, 모피
44~46	목재, 목제품
47~49	펄프, 인쇄물
50~63	섬유, 의류
64~67	신발, 모자
68~70	돌, 시멘트제품, 유리
71	귀금속
72~80	철강 제품, 1차 금속
81~83	비금속 제품
84~85	기계, 전기 제품
86~89	운송장비
90~92	광학, 정밀기기, 의료, 악기
93~97	가구, 완구, 예술품, 잡제품
98~	기타

<부표 2> HS 2단위 무역 부류표

1	산동물
2	육, 식용설육
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품
5	기타 동물성생산품
6	산수목, 기타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8	식용의과 실과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9	커피, 파, 마태, 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12	채유용 종자·과실, 각종종자·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짚·사료식물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액즙과 엑스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
15	동식물성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 동식물성의 납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당류와 설탕과자
18	코코아, 코코아조 제품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조제품, 베이커리제품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 조제품
21	각종 조제식료품
22	음료, 알코올, 식초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26	광, 슬랙, 회
27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회토류 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유기·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염색엑스, 탄닌과 그유도체, 염료·안료, 에인트, 퍼티,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페이스트
35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우,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0	고무와 그 제품
41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제품, 마구·여행용구·핸드백·기타 유사제품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5	코르크와 그 제품
46	짚·에스타르트·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지조세공물
47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 오스재료의 펄프, 지·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8	지와판지, 제지용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49	인쇄서적·신문·회화·기타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도면
50	견
51	양모·섬수모·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2	면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4	인조장섬유
55	인조단섬유
56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57	양탄 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바닥깔개
58	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9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 제외)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석유제품, 녕마
64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66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68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9	도자제품
70	유리와 유리 제품
71	진주, 귀석·반귀석,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2	철강

73	철강의 제품
74	동과 그 제품
75	니켈과 그 제품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8	연과 그 제품
79	아연과 그 제품
80	주석과 그 제품
81	기타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2	비금속제의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3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90	정밀기와 의료용기기
91	시계와 그 부분품
92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립식건물
95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6	잡품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8	기타 제품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located in the top left corner. It features a circular emblem with a stylized flame or 'J' shape in the center, surrounded by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nd the Korean text '제주대학교'.

## ABSTRACT

# Analysis of the Export and Import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ang Sha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ree countries trading status with China, Japan China and Japan trade between nations of the two structures, Construction, and after reviewing the structural features, trade-specific index,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he market index, using comparative three countries China, Japan and major industrial competitiveness World and United States national, as well as partners in the market is competi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na and Japan 3 interoffice trade structur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aesegye three countries in 2010 compared to total exports, China 1 trillion 2000 billion (the world's No. 1, 11.1% share in world exports), Japan, 5,800 billion (4th place, copper 5.3%), South Korea 3,600 billion (World 9 above, copper 3.3%), respectively, to record levels in China and Japan and South Korea's 3.3 times the level that is 1.6 times that of Korea. The number of one trillion U.S. dollars in China (the world's No.2, copper 9.1%), Japan 5,500 billion(5th, East 5%), South Korea 3,200 billion (the

world's No.9, East 2.9%) and China each recorded 3.1 times that of South Korea level and 1.7 times the level in South Korea is Japan.

South Korea exported a total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 a non-species list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23%, followed by transport equipment 21%, 11% machinery, iron and steel metal products 10%, China Electronics with 23% in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ed by machinery, 20%, textiles 13%, and steel metal products 10%, Japan, the transport unit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25%, followed by machinery, 19% of 18%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Electrical and electronics, transport equipment, machinery, including exports of items 3 to 62% of the total is higher than South Korea and China.

China, Korea and Japan for the trade deficit and trade deficit against South Korea, Japan and the three interoffice vision to the fact that the trade structure can be found.

Second,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using the three countries China, Japan and daemiguk daesegye, and the three countries on bilater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summarizes changes results are as follows.

3 interoffice compared with the TSI index, China, Japan and South Korea compared to the plastic or rubber and leather goods, electronics, precision instruments, but it seems a relatively low competitiveness, textile, non-metallic minerals, iron and steel metal products appear in the comparative advantage has been observed that stronger competitive. The technological gap between nations of these three have been reduced,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Chinese industries in Japan and Korea can view higher than that.

China's textile industry is labor intensive, non-metallic minerals that have a highly competitive compared to Japan, while Japan's industry is capital intensive machinery, electronics, transportation equipment, precision

instruments as the relatively low compared to Japan can be Japanese industry is still more than the Chinese industry has the technical advantage that can be interpreted. In addition, China's textile industry is labor intensive, non-metallic mineral, metal products and steel industry is capital intensive and highly competitive than South Korea show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over trade jungilgan technology means that the gap is smaller.

RCA index three countries in the world market through steel metal products, electronics, precision instruments to maintain a high market share led to intense competition, whil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ng, chemical products, timber and pulp showed that the weak competitiveness. If the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in China, Korea and Japan is lower than the share of textiles, nonmetallic minerals, and other manufacturers in the world market share, higher than South Korea and Japan as a strong competitive edge was observed.